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2일)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오계 지키며 군 생활 임하겠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3500여 훈련병들이 불제자로 거듭났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9일 호국연무사서 수계법회를 봉행했으며 장병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증서 3000장을 전달해 생명살림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계사를 맡은 일면 스님은 "훈련병들이 오계를 잘 수지하며 바른 불자로 거듭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오계수지의 의미에 대해 장병들에게 설하는 모습. **글=김지원 기자 · 사진제공=생명나눔실천본부**

# 6천 비구니 구심점 '반백년' 맞다

## 출범 50주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역할과 과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구세원력을 사회에 실천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조직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출범 반백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전국비구니회는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비롯해 앞으로 비구니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오는 10월 28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서 '전국비구니회 50년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행사는 오전 8시 영산재를 시작으로 △법요식 △문화공연 △바자회 등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특히 비구니회 역사가 담긴 다큐멘터리 상영과 17개 지회가 참여하는 장터를 통해 6천여 비구니들의 소속감과 원력 결집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비구니회는 "50주년을 맞아 올바른 불교적 가치와 문화를 홍보하고 대중과 함께하고자 한다. 지역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이웃종교와의 편견과 선입견도 제거해 상호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키우고자 한다"면서 "비구니회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고 뮤지컬, 사찰음식 체험 및 시식 등 불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불교문화 한마당으로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 전국비구니회 시작과 발전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2월 '도덕을 높이고 신의를 밝혀 사회의 꾀함을 위함'이라는 기치 아래 전신(前身)인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가 조직되며 시작을 알렸다. 여기에는 비구니계 원로로 2016년 입적한 진관사 진관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한 광우 스님과 명성 스님 등이 뜻을 모았다.

같은 해 5월 열린 첫 임시총회에서는 교육 · 수행 · 포교 ·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우담바라회는 △총림의 건립 △포교의 합리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3대 강령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며, 3대 비구니사찰로 불린 서울 숭인동 청룡사에 사무실을 뒀다.

**1968년 우담바라회로 출범**
**전국비구니회로 명칭 바꿔**
**최대 비구니 스님 모임 발전**

**10월 28일 50주년 기념행사**
**영산재 · 문화 공연 등 진행**

이후 우담바라회는 1년여 만에 회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 전국적인 조직으로 거듭났지만 1970년대 추진하던 총림 설립이 난항에 부딪히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지명스님이 3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다. 이때 우담바라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1981년 서울 성북동 성라암에 한국비구니대학(중앙승가대 합병)을 설립하고, 1988년 양천구 목동청소년회관과 양천구민체육센터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20여 년간 이어온 모연운동을 통해 1998년 강남구 수서동에 총 면적 2500여 평의 전국비구니회관을 착공해 2003년 개관했다.

또한 개혁종단 출범 이후 중앙종회에 비구니종회의원 10석을 마련해 입법활동에 역량을 쏟는 한편,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비중이 점차 커져 교육원과 포교원, 총무원 재무부 및 문화부 등 각종 분야의 종무행정에도 공을 세웠다.



**전국비구니회 50년 약사**

| | | |
|---|---|---|
| 1968. | 2. |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 발족 |
| 1980. | | '조계종 전국비구니'로 명칭 변경 |
| 1981. | 3. | 성라암에 한국비구니대학교 개교 |
| 1988. | 12. | 목동 청소년회관 등 위탁 운영 |
| 1998. | 9. | 전국비구니회관 기공식 |
| | 10. |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 추천 |
| 2003. | 8. |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기념법회 |
| 2006. | 6. | 비구니 수행전통에 대한 포럼 |
| 2007. | 3. | 전국비구니회 법화산림 특별법회 |
| 2016. | 5. | 비구니 원로회의 구성 |
| 2016. | 6. | 해인사 자비원 인수 운영 결의 |

### 종헌종법 개정… 비구니 복지 확대 '과제'

전국비구니회는 수십 년간의 운영을 통해 비구니들의 위상강화를 이끌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대중의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부분의 과제가 현행 종헌종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와의 교감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비구니 위상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를 종법기구로 격상시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비구니특별교구를 설립해 비구니사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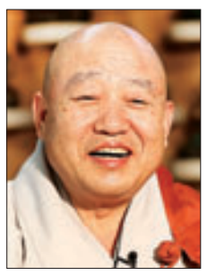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구니회 회원스님들은 이 같은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내부적인 공론화와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해 종무회의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비구니회는 승려복지회와 동국대 일산병원 MOU를 통해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료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승려복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더 많은 비구니스님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비구니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만큼 비구니들의 활동이 종단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비구니들의 대사회활동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더 많은 중앙종무기관 소임자가 배출되도록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조계종 원로회의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인준

## 10월 2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지난달 28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돼 즉시 임기에 돌입한 원행 스님〈사진〉이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인준을 거쳤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0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0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원행 스님의 인준 건을 다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과 관련된 공식적인 종헌종법 절차를 통과했으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인환대종사를 제외한 22명의 원로의원이 참석했다.

안건 논의에 앞서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우리 종단은 근래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맞았지만 지난 8월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계기로 총무원장 선거체제로 전환됐고, 9월 28일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원행 스님이 36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면서 "새로 선출된 총무원장 인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회의서 이월된 종단 현안 논의의 건을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민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와 종단의 중흥을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에 원로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원로들께서는 종단 안정과 중흥을 위해 애종심으로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앞으로 화합과 혁신, 복지와 교육, 포교, 대사회활동 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큰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인사했다.

회의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원로회의 사무처장 남전 스님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총무원장 인준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다른 안건인 종단현안 논의의 건과 기타안건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남전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준 후 원로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 사부대중과 함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정 예하와 제방 원로 대덕 스님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납은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우리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불교와 조계종은 중생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전통문화 계승과 창달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종단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으로 출가자 및 불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조계종단 안팎으로 많은 견해대립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단 과제 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승가복지와 종단화합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그것입니다.

**먼저 승가복지입니다.**

승가복지가 되어야 승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승가소속감을 높이겠습니다. 교구중심제를 위한 첫 사업으로 교구본사와 협의하여 노스님들을 위한 교구별 복지관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단화합입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만들어 어떠한 의견일지라도 총무원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비구니회를 종법기구화하여 비구니스님의 의견을 직접 듣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남북불자교류협력에 우리 종단이 앞장 서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남북불교계공동으로 복원했던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등 적극적인 남북평화사업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불교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불교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문화창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에 회향하는 명실상부한 대승불교의 모습으로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저 원행은 종정 예하와 제방 원로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총무원장 직무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고,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2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당선자 **원행** 합장

# 불광사 사태 해결, 창건주 승계 합의

## 불광미디어는 지홍 스님이 8년간 운영키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점거와 해고, 민사소송 등 극한 대립까지 치달았던 불광사 사태가 양측의 합의로 인해 일단락됐다. 전 회주 지홍 스님이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광덕문도회에 승계하기로 한 것이다.

지홍 스님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 불광사 법주 지오 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등은 9월 28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불광사 창건주 권한 승계에 대한 자리를 갖고 원만해결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날 지홍 스님 측은 합의 체결 후 불광사 창건주 직을 문도회장 지정 스님에게 승계하고, 사태 관련자들은 10월 8일까지 상호간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합의 체결에는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이 참석했으며, 소송 취하를 보고받아 창건주 권리 승계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10월 8일 이전이라도 형사고발 취하가 이뤄지면 승계절차는 이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 불광사 종무원과 산하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었다.

또 현재 월간불광과 한강수출판, 불광미디어로 구성된 주식회사 불광미디어는 8년간 지홍 스님이 운영한 후 주식을 불광사에 양도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본공 스님이 소유한 주식도 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9월 28일 대각회 중재로 진행**
**양자 소송 취하 후 권한 이양**
**불광사 직원 고용안정도 명시**

지홍 스님은 창건주 승계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주내로 불광사 산하 반야원, 불광유치원, 불광연구원 및 수탁기관의 직위에서 사임하고, 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앞서 지홍 스님은 종무원과 부적절한 메시지 및 불광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을 받아 6월 3일 회주직을 사퇴했다. 6월 13일 광덕문도회를 떠났지만 창건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부 신도들의 반발로 사찰 점거 사태까지 이어졌다.



**불광사 사태 일지**

| | | |
|---|---|---|
| 6월 | 3일 | 불광사 명등 일동, 지홍 스님 사퇴 압박 |
| | 4일 | 지홍 스님 의혹 반박 및 창건주 유지 입장 |
| | 13일 | 지홍 스님 광덕문도회 탈퇴 문도회 지오 스님 회주 선출 |
| | 26일 | 불광사 직원들, 호법부에 혜담 · 본공 스님 징계 요청 |
| 7월 | 6일 | 불광사 명등 일동, 지홍 스님 형사고발 |
| | 10일 | 대각회 정상화위 구성 |
| | 31일 | 불광사 직원들, 노조 결성 |
| 8월 | 20일 | 대각회 정상회위 2차 회의서 위원장 흥교 스님 사퇴 |
| | 23일 | 불광사 노조, 본공 스님 성추문 의혹 제기 |
| 9월 | 10일 |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 취임, 양자 중재 진행 |
| | 28일 | 대각회 회의서 양자 합의 타결 |

불광사 · 불광법회 명등 일동은 7월 6일 지홍 스님을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했고, 양측의 대립 속에 대각회가 7월 10일 불광사 정상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해결에 나섰지만 폭력사태까지 번졌다. 이후 불광사 종무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용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한 노동조합을 7월 31일 결의했다.

불광사 노조는 8월 23일 지홍 스님의 의혹을 제기한 본공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다시 제기했으며, 이에 본공 스님은 27일 참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측의 의혹 제기와 소송 등 대결 국면 속에 사태는 불광사 정상화대책위까지 사실상 와해되며 극한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9월 10일 대각회 새 이사장으로 태원 스님이 취임하며 양자 간 협의가 다시 진행됐으며, 28일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이 입회한 가운데 전격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 '진호국가사상' 문화축제로 승화

## 진각종, 10월 잇달아 회당축제 · 월곡달빛축제

**종조 유지 기리는 회당축제**
**올해 경주서 처음으로 개최**
**신라 의식 문두루법 시연도**

과거 천재지변이나 외세 침입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밀교의식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진호국가사상'이 10월 한 달간 진각종서 다양한 문화축제로 펼쳐진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10월 13일 오후 4시 제2회 월곡달빛축제를 월곡1동 동신아파트~아남아파트 앞 대로변 200m 구간에서 개최한다. 행사장에는 서울시민예술대학 전통한지등학교를 거쳐 시민작가들이 제작한 등과 성북문화재단 이주여성센터,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등 강의를 통해 제작된 등을 비롯해 총 500여개의 달빛등이 전시된다.

또한 생명의전화, 월곡1 · 2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덕여대 등 지역민과 예술인 등이 동참하는 먹거리마당, 체험 및 공연마당이 펼쳐지며, 오후 6시 30분 점등식이 진행된다.

오랫동안 진각종 종조 회당 정사의 가르침을 기리며 울릉도 일대를 달군 '회당문화축제'는 10월 24~26일 경주로 무대를 옮긴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하며 행사의 또 다른 가능성을 내다본 진각종은 올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식재 · 증익 · 항복 · 경애 4가지 테마로 회당문화축제 백미인 진호국가 콘서트를 연다.

이 행사에는 지진피해를 겪은 경주의 자연재해가 식재되고, 남북관계가 증익되길 바라는 서원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신라문화원과 경주교구청 및 심인당이 준비한 불교 · 전통문화체험마당이 마련되며, 진각종 장엄등 10여 점이 대릉원 일대에 전시된다.

이외에도 26일 경주서는 '문두루법' 시연회가 진행된다. 한국밀교문화총람사업단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시연회서는 진각종 스승들이 나라안녕과 국가발전 염원을 담아 문두루법 의식을 재현한다. 문두루법은 신라시대 명랑법사가 당나라군을 막기 위해 주도한 국가차원의 불교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 조계종 장학위 종단 장학승 선발

## 11월 9일까지 접수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가 '2019학년도 종단 장학승'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석 · 박사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과 조계종법에 의해 설립 · 인가된 승가대학원의 전문 · 연구과정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이다.

선발 분야는 불교학을 비롯해 제학문 분야를 포괄한다. 다만 '계율(율장 · 청규)' '한국불교사(근 · 현대)' '종교법무 · 행정 · 경영' '불교문화(음악 · 영상 · 미술 · 건축 · 의례 등)' '불교심리학(심리 · 명상 등)' 분야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또한 △각급 승가고시 수석(최우수) 합격자 △동국대 · 중앙승가대 수석 졸업자 △교육원 주최 학인대회 수상자 △국제불교영어학과 · 한국불교융합학과 졸업자 △사찰승가대학 · 사찰승가대학원 상주교수 역임자 등에게는 선발 시 가산점이 부과된다.

장학금은 등록금 · 연구비 등을 포함해 책정하며, 선발 장학승의 해당 과정 수료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며, 제출서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02)2011-1818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운 스님의
## 보리수 아래서

# 6도 윤회 벗어나기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중생의 생활방식을 6가지로 구분하여 6도(六道) 중생이라고 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6도인데 우리는 이 6가지 길을 하루에도 수천 수백 번씩 오르내립니다. 이처럼 6도 세계에서 윤회전생(輪廻轉生)하는 것이 6도 윤회(六道輪廻)입니다.

중생이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 죽은 뒤 6도 윤회하듯이,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도 6도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6도 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을 3악도(三惡道)라고 합니다.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도는 매우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인색하여 보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귀도에서 굶주림의 고통을 받습니다. 축생도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과보입니다.

아수라, 인간, 천상을 3선도(三善道)라고 합니다. 아수라도는 남의 잘못을 따지고 규탄하는 이들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곳입니다. 인간도는 10선과 5계를 닦았으나, '탐진치' 삼독이 내재된 이들이 갑니다. 불법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세계입니다.

천상도는 행복이 갖추어진 곳이지만 극락이나 열반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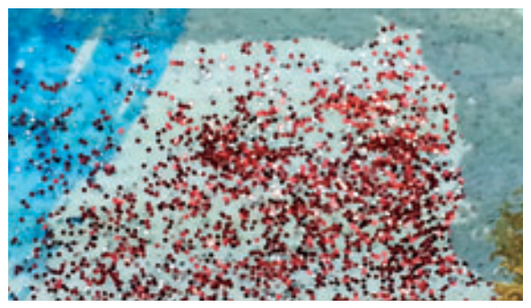
6도 윤회는 업보의 법칙으로 그 업이 다하면 끊임없이 다른 세계로 윤회전생합니다.

*앞에서 살펴 본 죽은 뒤의 6도 윤회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전개됩니다. 마음에 번뇌와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지옥이고, 탐심이 가득하면 아귀입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말이 있듯 짐승처럼 어리석으면 축생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라에도 가고 인간계 또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지난 8월 폭우가 쏟아질 때 서울의 어느 한옥집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집 안주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물난리의 아수라장에서 자기 집 재해의 원인을 불효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과를 믿고 불효를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참회는 부처님의 빛으로 허물을 고치고 업장을 소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백겁적집죄(百劫積集罪) 일념돈탕제(一念頓蕩除)입니다. 마음에 6도세계가 없으면 6도에 갈 일이 없습니다.



육도윤회 응무소주 그림 · 조향숙

**날마다 수없이 윤회 반복**
**6도 만드는 '생각 말 행동'**
**이고득락 해탈의 열쇠**

*나와 내 것에 집착할 때 6도 중생은 윤회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에서 생기는 탐진치의 업 덩어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속에서 6도가 만들어 집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면 6도에 걸림없는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들여다보고 참회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무아를 통찰하면 우리는 중생에서 6도를 넘나드는 보살로 향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6바라밀을 수행하여 응무소주(應無所住)까지 가면 윤회를 벗어난 진공(眞空)의 무심이 나오고 묘유(妙有)의 이생기심(而生其心)에서 자비심이 나옵니다. 그자리가 6도에서 벗어난 화엄이고 법화 입니다. 지금 여기 현생에서 이고득락 해탈의 삶을 삽시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 열쇠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 지금 사찰은 '자비심' 더한 국화향 물씬

## 조계사 제8회 국화향기나눔전 등 눈길

### 조계사 '초전법륜' 테마 9일 개막
### 자원봉사단 집수리, 문화공연 다채
### 삼광사 · 통도사도 뒤이어 국화축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국화축제 나눔전 모습. 올해는 이웃을 위한 자비행사 의미를 더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 사찰은 지금 국화 장엄으로 불자와 시민들을 맞이하는 데 분주하다.

먼저 국내 사찰 국화축제의 원조격인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의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는 10월 9일 8번째 문을 연다.

조계사는 10월 9일 오후 2시 40분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은 초하루 법회를 맞아 조계사를 찾는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

조계사 국화축제는 전남 함평군과 사찰과 농촌의 상생 일환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사 국화향기나눔전에는 함평의 국화가 전시되며, 조계사 일대에서 함평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농산물도 저렴하게 직거래로 판매된다. 또 조계사는 함평 영화학교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나눔행보도 더한다.

이번 국화향기 나눔전의 테마는 초전법륜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또 전법에 나선 모습을 형상화한 국화장엄이 새롭게 선보인다.

조계사 일주문과 대웅전 사이에는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전법하는 초전법륜상이 재현된다.

이밖에 지난해 선보인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수인으로 표현한 33관음수인, 큰 인기를 얻은 서유기, 코끼리와 용, 동진보살 등을 형상화한 국화장엄도 선보인다.

조계사 국화축제는 국화장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10월 19일 오후 12시 10분, 맑은소리합창단과 민요팀이 합창과 민요 공연을 진행한다. 회화나무합창단과 향무용단이 10월 26일 오후 12시 10분, 특별공연을 펼치며, 11월 4일 어린이 합창단과 밴드의 공연도 진행된다.

공연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10월 10일 사찰음식 무료시식회와 야경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11일 제2회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현장체험 17일 중양절 맞이 국화수륙재, 18일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발대식, 21일 가족이 함께 국화꽃등만들기, 24일 제10회 채용박람회 일구데이가 진행된다. 11월 4일에는 어린이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도 펼쳐져 어린이들이 국화장엄 속에서 솜씨를 뽐낼 수 있다.

특히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은 집수리 봉사 등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심을 나눈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에서는 다양한 국화축제가 열린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도 11월 중순까지 '희망은 UP, 행복은 Together'라는 주제로 제2회 국민화합 희망나눔 국화문화축제를 열며, 양산 통도사(주지 영배)도 국화장엄 등을 선보이는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신도님들과 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속 가을 정취를 흠뻑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30여 년 숙원, 봉은사 미륵대불 원불 나투다

바람에 축원을 담은 오색실과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거대한 미륵대불 옆으로 3999위의 미륵원불이 모습을 드러냈다. 30여 년만의 숙원 불사가 이뤄지는 순간, 봉은사 경내에 모인 2000여 대중은 탄성을 내뱉었다.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 봉은사(주지 원명)는 9월 30일 미륵대불 미륵광장에서 2000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점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봉은사는 '미륵대불 원불 봉안불사점안식을 앞두고 미륵불 2,506위(총3,999위), 미륵가족불 22위(총22위). 보살입상 7위(총23위), 금강역사 2위(총2위)를 1차로 봉안하여 대중에 선보였다.

점안식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천수경, 화취진언, 목욕진언, 축원 등 의식을 진행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1년도 안 되어 70% 정도 원불이 모셔지며 미륵대불 용화정토로 장엄할 수 있음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 1만원으로 즐기는 가을 사찰여행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운영

기록적인 폭염이 물러가고 한층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단돈 1만원으로 즐기는 사찰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가을 여행주간'에 1박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하는 '행복만원(幸福滿願)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공주 마곡사 · 보은 법주사 · 순천 선암사 · 양산 통도사 · 해남 대흥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을 포함해 전국 각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01곳이 참여한다.

템플스테이는 △연꽃 컵등 만들기 △108배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즐기는 '체험형'과 자연 안에서 마음의 안정과 쉼을 찾는 '휴식형'으로 나뉜다.

참가신청은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일 오후 5시까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내 · 외국인 8천 명으로 참여 인원 도달 시 예약을 마감한다.




문화사업단은 이밖에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행복 인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사찰서 자신이 찍은 행복한 모습의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 후 템플스테이 계정에 댓글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30명)을 증정한다.

문화사업단 측은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인지도가 높아져 2~3개월 전부터 국내외서 문의가 들어온다"며 "조기에 예약이 마감되기도 하니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사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 中道 통해 현재 종교를 돌아보다

### 고요한소리, 10월 13일 제2회 '중도포럼'

부처님 가르침 중 핵심인 '중도사상'을 통해 현재 종교 상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고요한소리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도와 종교'를 주제로 제2회 중도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고요한소리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한 중도포럼은 이번에는 중도의 길에서 현재의 종교를 돌아보는 발표와 법문이 이뤄진다.

시작은 고요한소리를 창립한 활성 스님의 발제법문으로 알린다. 주요 발표로는 최종석 금강대 명예교수가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김재영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종교와 종교학의 필요성'을, 이정배 목사가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 등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 대해 고요한소리는 "중도 불법의 회광반조의 정신은 자칫 종교가 빠지기 쉬운 배타적 독선성을 뿌리 뽑고 진리와 자유를 향한 개방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보루가 될 것"이라며 "제2회 중도포럼이 이 같은 보루를 구축하고 다져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 "'살만한 집'에 살 권리 보장하라"

### 사노위 등, 10월 3일 주거불평등 해소 오체투지

"집은 돈을 벌기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주거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최근 집세 폭등으로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체투지와 달팽이 행진이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고, 미래 청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 주거의 날'인 10월 1일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와 주거시민단체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정부에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사노위를 비롯해 종교 · 세입자 · 청년 · 빈곤 · 주거 단체 참가자 150여 명이 동참했다.

사노위는 주거권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먼저 오체투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체투지 행렬 뒤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집은 인권이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 플래카드, 풍선을 들고 행렬을 따랐다. 머리띠와 등에 착용하는 구조물로 달팽이를 형상화한 모습은 집이라는 짐을 지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을 상징한다.

혜찬 스님은 "졸부들의 땅과 건물이 대우받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신성한 노동자의 땀이 우대를 받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강제퇴거 금지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지원 기자

## "에너지 '과잉' 시대, '절약' 하자"

### 불교환경연대, 관련 가이드북 배포

불교환경연대가 가정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서울시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다이어트' 가이드북을 10월 초 회원 및 후원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가이드북은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과 습관을 점검하는 계획을 세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가이드북은 △가전제품 △식사 △장보기 △교통수단 등 분야로 내용이 구성돼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에너지 다이어트 계획 및 실천에 적극 동참한 이들을 달마다 시상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19쪽 '계획하기' 란에 적은 사용량과 소감을 작성한 뒤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010-9656-1654)로 전송하면 된다.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우리 건강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에너지 과잉시대를 전환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이어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 춘천에 초기불교 수행도량 개원한다

## 제따와나 선원, 춘천 이전… 10월 14일 개원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강원도 춘천 남면 박암리. 꼬불꼬불한 1차선 시골길을 따라가니 주홍빛 벽돌로 올라간 건물이 보인다. 이색적이지만 왠지 낯이 익다. 무언가 기시감이 든다.

그렇다. 인도의 기원정사(제따와나) 유적지. 아나타삔디까(수달타) 장자가 제따(기타) 왕자 소유의 숲에 지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보시한 선원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은 안거를 보내며 수많은 가르침을 펼쳤던 곳.

주홍빛 벽돌의 인도 기원정사 유적지를 연상케 하는 건축물은 바로 서울 강남 방배동에서 초기불교 수행으로 이름을 알렸던 제따와나 선원(선원장 일묵)이 새롭게 문을 여는 도량이다.

2009년 서울에 문을 연 제따와나 선원은 9년 만에 강원도 춘천 남면에 새로운 수행처를 마련해 '춘천 시대'를 개막한다.

춘천 남면 박암리에 자리한 제따와나 선원은 3500평 대지 위에 법당 · 선원, 요사채, 숙소, 종무실 등 7동의 건물로 구성됐다. 초기불교 수행도량인 만큼 전통적인 한국 사찰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성했다. 나무로 조성된 한옥이 아니라 콘크리트 외관에 기원정사 유적지 벽돌과 유사한 파키스탄 벽돌 30만장으로 외관을 장엄했다.

그래도 도량의 배치는 전통사찰 형식과 유사하다. 3개의 단(壇)으로 나뉜 도량은 첫째 단에는 종무소와 재가 숙소가, 두 번째 단에는 스님들의 요사채가, 세 번째 단에는 법당과 선원이 배치됐다. 이는 임형석 건축가가 설계한 것으로 "단을 오를수록 속세와 멀어지고 부처님께 가까워지는 점층적 구조"라는 게 제따와나 선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 번째 단에 있는 법당 내부도 파격에 가깝다. 새하얀 공간에 오로지 부처님 한 분만이 석조 좌대 앉아 계신다. 후불탱화도 없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상주하는 공간이다. 부처님상은 샤르나트 박물관의 초전법륜상을 모티브로 조성됐다.


서울 강남에서 초기불교 수행도량으로 이름을 알렸던 제따와나 선원이 춘천으로 이전한다. 사진은 '춘천시대'를 여는 새로운 제따와나 선원 도량 전경.

**법당 등 인도 기원정사 재현 불사**
**파키스탄 벽돌 30만장 외벽 장엄**
**전통사찰 건물 배치 그대로 따라**

**중도 수행 · 안거 집중 수행 '중점'**
**"서울서 못한 수행과정 운영할 것"**

법당 2층에 마련된 선원은 다른 입구로 출입해야 한다. 선원으로 올라가는 공간도 새롭다. 거칠게 마감한 벽면이 마치 동굴이나 토굴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대중 수행 공간인 2층 선원은 5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이곳에서 제따와나 선원은 서울에서 할 수 없었던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준비 중인 하안거 · 동안거 집중 수행이다. 안거철에 모여 승가와 재가가 오롯이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분기별 1회 중도 수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초심자, 기본, 고급, 심화과정 등 4단계로 나눠 이뤄지는 중도 수행은 바른 견해인 사성제와 청정한 계를 바탕으로 바른 삼매를 닦고, 이를 기반으로 바른 지혜를 계발해 바른 해탈을 실현하는 수행 방법이다.

일묵 스님은 "사성제는 불교 수행의 시작과 끝"이라며 "현재 불교는 이를 등안시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성제를 바탕으로 중도를 닦아 바른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선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따와나 선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와 매월 둘째 주 일요법회, 초기불교대학도 운영한다. 제따와나선원 홈페이지(www.jetavana.net), 유튜브, 팟빵, 팟티,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서 사성제와 팔정도 법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묵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춘천에 초기불교 수행도량이 건립해 잘 운영한다면 지역 불교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 수행으로 바른 불교를 알리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따와나 선원은 '춘천 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전 개원 법회를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춘천 도량서 봉행한다. 법회에는 원택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백련암 문도스님 등 50여 명의 스님들과 춘천 지역 관공서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할 예정이다.

## 불교로 본 '소확행'

### 대한불교진흥원, 10월 16일 화요열린강좌 개최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행복은 어떤 내용일까?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10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불교적 행복을 말하다'를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배연국 세계일보 논설실장은 그의 저서 〈소확행〉을 바탕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자신이 불자임을 밝힌 배연국 논설실장은 강의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소소한 삶의 아름다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돕는 지혜 등을 짚는다.

화요열린강좌는 회비가 무료인 대신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3천원 이내 보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시함에 모인 금액에 진흥원이 일부를 보태서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02)719-2606

김지원 기자

## 금강경독송회, 22년 보시행 눈길

### 아름다운동행에 총 1000만원 전달
### "보살심으로 보살행 · 보살도 닦아"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대표 김재웅)는 9월 6일 아름다운동행에 티베트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지정기탁했으며 같은 날 사단법인 좋은벗들의 탈북 동포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새터민 모자 가정에 500만원을 전달하는 김재웅 대표(사진 가운데).

이날 기부금은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된장, 참기름, 조청, 편강 등 전통음식을 생산,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금강경독송회의 기부활동이 눈길을 끄는 것은 매년 1000만원씩 22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 국내외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매일 금강경 7독과 염불 정진 및 마음살림살이 수행 덕목으로 삼고, 전국 사찰과 군법당 등에 금강경 50만권, 불서(마음 닦는법) 180만권을 법보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한국 알리기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우리 문화 역사 관련 8종의 책을 6개 언어로 제작하여 78만권의 책을 무료 배포하였고, 35종의 영상을 7개 언어로 제작, 1만2000회가 넘는 상영회를 열었다.

스웨덴의 노벨물리학상 심사위한인 요한슨 뵈리에 교수 등 세계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영상을 보고 한국의 역사의 깊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연습하는 심성교육을 위해 매년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기리며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숭조애인,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충효예 정신을 주제로 12년째 장학금을 주는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3300명의 미국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 미국 학생들의 수상작을 다시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읽혀 우리 청소년들에게 밝은 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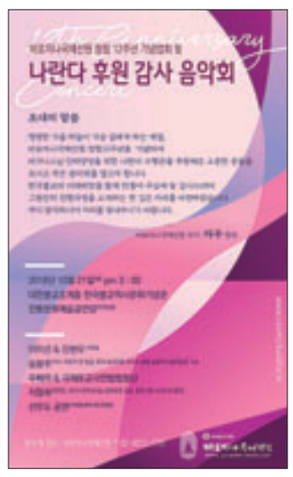
김재웅 금강경독송회 대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바로 죄 지은 것, 마음 닦는 것, 그리고 선행하고 공덕 지은 것"이라며 "모든 불자들이 늘 남을 돕고 배려하며 베푸는 실행을 통해 보살심을 연습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보살도를 닦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비로자나국제선원 창립 12주년 음악회

###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서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이 창립 12주년을 기념하고 나란다수행관 후원에 감사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비로자나국제선원 창립12주년 기념법회 및 나란다 후원감사음악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주 씨가 찬불가 '바라밀'이 최초 발표한다. 또 선무도서대문센터 유단자들의 선무도 시연, 국악인 지향희의 공연, 우빼까&국제포교사회 연합합창단의 환희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06년 10월 29일 도심포교와 국제포교의 원력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내외국인을 위한 영어 참선법회 및 어린이 청소년 영어담마스쿨, 성인 영어담마스쿨 등 다양한 영어 불교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17년 7월 현재 홍제동으로 이전, 중창불사를 진행해 1층 갤러리카페 등 문화 공간을 확충, 도심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나란다수행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번 음악회는 나란다수행관 불사에 도움을 준 이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자우 스님은 "학인 스님들 중 월세와 생활비, 학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을 마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포교를 하고자 원력을 내어도 거처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나란다 수행관 유지 및 운영 등을 위한 '나란다 후원회'를 조직해 정기 및 단기 후원을 받을 예정이다. 더 힘찬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① 미국 불교명상의 현재는?
② 美 명상센터 현장 – 젠마운틴사원
③ 美 명상센터 현장 – 블루클리프사원
④ 美 명상센터 현장 – 개리슨인스티튜트
⑤ 美 명상센터 현장 – 레이크 쉬라인
⑥ 세계 명상 현주소와 禪명상 방향
⑦ 걸음마 뗀 한국 禪명상 과제는?
⑧ 불교명상 'GURU'에게 듣다

# 내용은 '간화선', 형식은 '세계화·현지화'



미국의 학교에서 명상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 〈이코노미스트〉는 명상을 수단으로 접한 이들이 불교의 철학을 받아들여 불자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 2017년 올해의 트렌드 선정**
**명상 산업 규모 2022년 21억불**
**치유효과 관심, 사회철학 승화**
**탈종교 · 탈종파 성향과 맞닿아**

**다양한 명상법 함께 교류 · 발전**
**사회서 명상 접하고 불교철학 가져**
**"세계 명상 조류는 불교전법 기회"**

**전통 간화선 외국인 반응 엇갈려**
**본질 잃지 않는 현지화 전략 필요**
**"언어부터 지도인력 양성까지 고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새로운 흐름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우리들 삶의 궁극적 가치를 찾아가는데 종교의 역할과 인간 본연이 가진 종교적인 성향은 여전하다. 그로 인해 불고 있는 것이 일련의 명상 열풍이다. 영성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제3의 종교의 길이 이제 탄생하고 있다.

### 명상, 이젠 세계적인 조류

2017년 애플사는 올해의 애플리케이션과 올해의 트렌드 등을 발표하며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정신적 건강을 염두해 두다(Mindful of Mental Health)'를 한 해의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이와 관련된 개발자들의 앱스토어 올해의 추천앱으로 명상앱인 헤드스페이스(Headspace)를 제시했다. 3000만 명이 사용하고 포브스가 가치가 2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한 명상앱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바일 앱 분석 회사인 센소타워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명상앱은 1300개를 돌파했다. 캄(Calm), 심플해빗(simple habit), 인사이트타이머(insight timer) 등 명상을 테마로 한 다양한 앱이 출시되자 전 세계적으로 명상 분야의 또 다른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소수의 수행자,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됐던 명상은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시장조사 회사 '마켓데이터 엔터프라이즈'는 2017년 명상의 산업 규모가 약 12억 달러로 2022년에는 2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지친 현대인, 명상에 빠지다

명상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목은 이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명상 인구만 1800만을 넘어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으며 구글(Google), 애플(Apple), P&G, 페이스북(Facebook) 등 유수의 기업들이 사내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상이 유발하는 효과 때문이다. 초기 명상을 하는 이들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접하고 있다. 명상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국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대수명의 증가를 보면 명상인구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

명상의 의학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행복감과 열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 된다는 美위스콘신대 연구결과를 비롯해 청소년 심리치료에 대한 스페인 코르도바의 정신건강시설의 연구자료 등 다양한 곳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하지만 이는 명상 효과의 일부다. 명상상담심리학회 학회장 인경 스님은 "명상은 단순히 치료효과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 공동체 결집의 방편으로 불교를 일정부분 뛰어 넘고 있다"고 말했다.

### 유독 서구사회서 왜 인기인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는 최근 명상을 개인의 치료뿐만이 아닌 사회운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 비해 서구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돼 종교와 문화, 인종 등이 제각각이다.

명상도 이러한 이들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을 답사 후 논문을 발표한 이성전 원광대 교수는 명상 열기에 대해 "자신의 명상법을 선택하고 활용해 삶을 행복하게 이끄는 데 주목하고 있다. 명상 지도자들도 서로의 방법에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서로 넘나드는데 거리낌이 없는 경향이 있다"고 특성을 말했다.

서구사회에서의 명상은 동남아에서 온 위빠사나 전통의 명상 수행부터 동아시아 대승불교 전통의 명상 수행, 티베트 전통의 명상 수행에 더해 서구인들이 직접 아시아 등지에서 수행전통을 체험하고 과학 등과 접목한 명상 등이 있다.

여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 명상은 새로운 모습으로도 변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사회문제에 대해 밀접한 상호관계를 통해 밀착하거나 혹은 대립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동성애와 낙태 등에서 유태교와 개신교의 반대 입장, 가톨릭의 중립적 입장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명상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다. 앞서 연재한 개리슨 인스티튜트의 경우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뉴욕공립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명상학습과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도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다.

### 불교 또한 명상열기 타고 확산

이런 가운데 불교 또한 명상의 확산에 힘입어 서구사회에서 각광받고 있다. 종교전문가 에라스무스는 〈이코노미스트〉 기고글을 통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 pew는 2020년까지 미국 불교도 수가 2010년 360만 명에서 적어도 420만 명으로 추정했다"며 "특히 미국인의 종교 감정 조사에서 가장 어린 응답자 층(18~29세)이 불교에 최고 점수를 주었다"고 전했다. 특히 에라스무스는 "미국에서 불교도로 불리는 모든 미국인이 불살생 등 불교의 오계를 알지는 못하고 기업에서의 명상체험 등 기업문화가 불교의 삶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불교적 삶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면 이들은 불교신자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과 사회에서 명상을 통해 불교를 접한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불교의 철학에 따른 삶을 살고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장이 열린다는 진단이다.

2016년부터 세계명상대전을 개최하고 최근 DMZ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명상대회를 개최한 각산 스님은 "종파나 국가적 전통은 세계무대에서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명상을 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명상을 통해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이다. 이런 국면에서 불교는 또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 선명상 세계화는 간화선 세계화

서구사회의 특징은 이제 그들만의 체계화된 명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 후발주자인 한국 불교, 그리고 간화선을 내포한 선명상은 어떻게 진출해야 할까.

〈달마, 서양으로가다〉를 펴낸 진우기 박사는 "서구 사회서는 현재 참선과 화두명상보다는 위빠사나, 조동종, 묵조선 계열의 선이 보급된 상태"라며 "선명상의 세계화, 간화선의 세계화는 얼마만큼 현지화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美스미스 대를 나온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인 간화선에 대해 몇 년 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했을 때 당시 평가가 양극으로 갈렸다. 기대가 없고 단발성이 아니냐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며 "본질인 간화선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이를 감싸고 있는 방법적인 부분은 현대화하고 현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선명상의 언어부터 현지에서 함께 동화돼 이를 지도할 인력 양성, 선센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운영 방침 등 현지인들이 친숙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에서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8〉 도평동 흥룡사

# 비인간적 토벌로 스님·주민 모두 희생돼



제주 4·3사건 당시 주지 백삼만 스님이 총살당한 흥룡사 전경. 원래 사명은 용장사였다.



흥룡사 대화주 홍순여 보살. 그녀 역시 제주 4·3사건의 피해자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영험이 깃든 기도처로 유명한 제주시 도평동 용장사(현 흥룡사). 홍순여(복덕행, 1929~, 90세) 흥룡사 대화주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의 광기로 피비린내 진동하던 1949년 1월, 용장사 주지 백삼만(속명 백인수) 스님이 이른 아침 공양을 마치고 포행을 할 무렵 허름한 갈옷을 입은 무리가 도량 안으로 들어섰다. 이어 인근 외도지서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이는 토벌대가 주민들에게 함정을 판 것이었다.

주민들이 모이자 군인들은 기관총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향해 사격을 했는데 백삼만 스님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다. 백삼만 스님은 그 후 3개월 후에 시신이 수습됐으며 그 안에는 총탄이 그대로 몸 안에 박혀 있었다고 전한다. 그동안 군인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용장사로 다시 쳐들어와 건물 일체를 전소시켰다.

토벌대에 의해 스님이 총살되고 용장사는 폐허를 맞는다. 제주 4·3사건의 상처는 남겨진 자들에 대물림됐다. 백삼만 스님의 아들인 백금남 씨는 당시 두 살배기였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부산 영도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중학생이 될 무렵 어머니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털어 놓는다. 그때서야 백 씨는 아버지가 스님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제주 4·3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너를 키워냈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갖은 고생을 하다 백 씨가 21살 때 돌아가신다.

이 세상 홀로 남은 백 작가는 고등학교 시절 습작으로 익힌 글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낮에는 막노동으로 심신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밤에는 가로등 등불아래 몽당연필로 자신의 작품을 써 나가기 시작했다. 내공을 키운 백 씨는 지난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 수상으로 등단했다. 1989년에는 백 씨를 세상에 알린 〈십우도〉를 발표하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유명해지고 평생 이름도 얼굴도 듣지 못한 한 살 위의 누이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40년만의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백 작가는 누이를 통해 어렴풋하게 아버지를 느끼게 됐다.

"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몸에 총알이 그대로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처음 해줬죠.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림과 조각에 뛰어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술적 피가 저에게 흘러 제가 불교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잿더미가 된 용장사를 다시 일으킨 것이 바로 1952년 능허당 덕종 화상이다. 이때 사명을 흥룡사로 개명하게 된다. 이후 1972년 대웅전을 중건하나 아쉽게도 스님은 세수 45세로 열반에 들게 된다. 그 후 홍순여 보살이 불사를 계승하지만 1987년 다시 화재로 사찰이 전소되고 만다. 한동안 시름에 젖어있던 홍순여 보살은 부처님을 위한 여법한 도량 조성의 초심을 다시 상기하며 2년 뒤인 1989년 지금의 장엄한 대웅보전을 완공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흥룡사를 여법하게 조성한 홍순여 보살에게도 제주 4·3사건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악몽과도 같다. 홍 보살은 제주 4·3사건 당시 동네 삼촌의 부탁으로 종이를 나눠주러 갔다가 화를 당한다. 그 종이는 산사람들이 전해준 삐라였다. 결국 빨갱이로 몰려 토벌대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용장사에 숨어들었다가 발각되어 집단 학살터로 끌려가게 된다.

"포승줄에 묶여 길게 줄지어 끌려가는데 제가 스웨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포승줄이 느슨하게 묶여 있음을 느끼고, '여기서 죽으나, 그곳에 가서 죽으나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뒤에 오는 사람하고 같이 탈출하자고 마음먹었죠. 때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스웨터가 펄럭여서 살았어요. 군인이 쏜 총탄이 가슴에 맞지 않고 다행히 엉덩이를 관통했던 겁니다."

겨우 돼지우리나 쇠막 등을 전전하며 치료한 끝에 목숨만은 연명했다는 홍 보살. 아직도 제주 4·3사건 피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주 4·3사건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용장사 주지 백삼만 스님, 1949년 1일 토평서 총살**

**사찰·마을 모두 불타… 스님 유해 3개월만에 수습돼**

**덕종 스님, 1972년 대웅전 중수해 흥룡사로 재창건**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 흥룡사

### 비인간적 함정 토벌 자행

### 스님·주민들 한 곳서 학살

흥룡사는 제주시 도평동에 위치한 태고종 제주교구 사찰로, 1933년 김영선 스님이 위봉사 제주도 도평포교소로 설립인가를 받은 용장사이다. 1943년 백양사 포교소로 변경 신고했다. 1941년 백인수 스님이 부임했다. 백인수 스님은 1945년 말 제주도불교청년단대회 선전부장을 역임,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 교무회원으로 선정돼 활동한다. 제주 4·3사건으로 1949년 1월 3일 백인수 스님은 도평초등학교에서 총살당했다.

도평리는 제주 4·3사건 시기 토벌대의 비인간적인 함정 토벌이 있던 곳이다. 1949년 1월 3일 외도지서 경찰과 군인이 무장대로 가장하고 주민들에게 산 측에 협조할 것을 종용했다. 토벌대가 무장대 협조 세력을 찾아내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러나 안면이 있던 경찰 등이 위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주민들이 있어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눈치를 채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토벌대는 결국 주민들을 도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도피자 가족들을 지명하게 해 선별한 후 총살함으로써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청년들은 외도지서로 연행해 총살했다. 이때 주민 70명 가량이 총살됐다.

토벌대는 도평리 주민들을 해안마을로 소개하도록 명령했다. 이미 소개 중인 사라마을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외도 등지로 소개 당했다. 토벌대는 도평동의 모든 마을을 불 질렀다. 도평동은 상동, 하동, 사라마을, 창오랭이, 왯뱅디, 짐수모루 등 6개 자연마을(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용장사 주지 백인수 스님은 흰 누비 장삼에 붉은 가사를 입고 도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집합했다. 토벌대는 주민들에게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했다. 백인수 스님도 도평초등학교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3개월여 후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토벌대는 도평 마을에 불을 질렀다. 도평리 사라마을에 있던 서관음사 쪽에서부터 불길이 솟아올랐고 이어 용장사까지 불을 질렀다. 용장사 초가 법당과 요사 등 건물 일체가 전소됐다. 이에 따라 불상과 탱화 등의 집기도 모두 소각됐다. 용장사는 1952년 김남수 스님이 초가 법당으로 재건하고 흥룡사로 개명했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 탈원전, 우리의 양심을 찾는 길

⑥ 원전 그리고 불교



원전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현재의 안락함을 누리는 수단이다. 기술 유무와 별개로 윤리의 문제이다.

### 독일 탈원전을 결정한 '윤리위원회'

때는 2012년 겨울, 베를린. 필자가 탈핵견학단을 이끌고 도착한 밤, 가로등이 많지 않아 도시는 굉장히 어두웠다. 식당에 들어가니 촛불이 기본이고 실내등은 은은하다.

그 다음날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만난 원전에너지 정책의 권위자인 메츠(Lutz Mez) 교수는, "우라늄은 전 세계 120만톤 매장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라늄을 이용한 양은 2010년까지 250만톤으로써 이미 묻혀있는 것보다 2배 이상 사용해버렸고 2025년까지 130~140개의 원전이 닫을 것"이라고 한다.

또, "원전 산업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핵폐기물, 산업의 역량(기존 발전소 관리, 새로 증설), 숙련된 노동력의 한계, 건설비용의 증가, 테러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은 멈춰야할 이유가 있다면서, 다른 방식의 발전 시설은 용도가 끝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원전은 그게 불가능하며 폐쇄비용이 엄청나다"고 했다.

이보다 더욱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다. 핵발전소는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 희생을 강요하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치명적인 윤리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메르켈총리는 탈원전정책을 각양각색의 17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왜 '윤리위원회'였을까? 탈원전은 양심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독일은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윤리위원회는 독일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8주간의 토론을 통해, 윤리문제 뿐 아니라 에너지전환이 충분이 가능하다는 점, 독일의 미래경제도 탈핵에 있다는 명쾌한 결론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출하였던 것이다.

독일의 그러한 과정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었기에 필자에게는 뚜렷한 기억으로 남았다.

### 잠 못 이루는 세월

돌이켜 보면 2011년 봄 후쿠시마 핵재앙은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이었다. 1979년의 스리마일 원전사고와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폭발까지는 우연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사고가 세 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률의 세계로 들어간다. 지금 세계 450개 원전 가운데 같은 확률로 발생한다면 천년이면 남아날 생물이 없다.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가하는 테러'이자 '인류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당시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동료교수들의 태도였다. 필자의 4대강 반대 활동을 열심히 성원해주던 공과대학의 교수 두 분께 이 문제를 거론했더니, 이 분들이 말한다.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놀랐다. 대안이 없다니? 원전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기껏 전기공급량의 1/3밖에 안되는데, 다른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가면 되는데 대안이 없다니. 그럼 독일은 무엇인가?

며칠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분들 정말 제정신인가? 평소에 동지처럼 지냈던 분들이라 충격이 심했다. 4대강은 문제되는데, 더 심각한 핵발전은 대안이 없으니 받아들여야 된다? 문제는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보통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많은 종교인들조차도 그러했다. 이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과연 대안이 없는가? 인터넷으로 살펴보니 독일은 너무도 훌륭하게 대안을 찾아가고 있었다. 당장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고 왔다. 견학 후 결론은, '대안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안들이 미래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훌륭하다'는 것이다.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많은 공익적 가치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자부심도 깔려있다.

그동안 우리도 탈원전 운동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탈원전을 선언한지 1년 남짓한 지금 반동이 거세다. 보수언론과 친원전세력이 세차게 반발하고 있다.

1980년에 국민투표로 원전불가를 선언했던 스웨덴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원전이 가동된 걸 보면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 같은 녹색선진국에서조차 말이다.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는 반대측의 힘이 작용하는 것은 물리의 법칙 같은 것이다. 대못을 뺄 때는 지긋하게 빼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추구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라오스의 학생들

때는 흘러 2017년 여름. 베트남을 지나 라오스에 접어들어 30km쯤에 있는 락사오(Lak Sao). 그 동네에서의 1년전 순례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5월에 서울에서 걷기 시작한 후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을 거쳐 8월말에 도착한 곳. 어느 나라든 걸어가면서 얻는 느낌은 차 타고 지나치는 것과는 비할 바 없이 풍성하지만, 라오스의 한 달은 행복하기 그지없는 시간이었다.

특히 락사오 지방은 자연 그대로 풍치를 만끽하면서 그들의 삶의 양식 하나하나가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그런 가운데 더욱 강렬했던 추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맨발의 동자승 탁발의 현장이다. 라오스에서 접한 스님들에게서 대중과의 삶과 일체가 되어 있는 탁발승들의 모습,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연히 넘나드는 듯한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공경심 등 강렬한 아름다움을 접하였다.

**탈핵은 기술아닌 윤리의 문제**
**미래세대에 짐 지우지 말아야**
**윤회로 태어나도 방사능 두려워**

또 하나는 공부에 열심인 어린 학생들과의 조우다. 걸어가다가 필자 일행을 발견한 교사의 초청으로, 영어학교에서 짧은 영어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다람살라를 거쳐 바티칸까지 이르는 생명 · 탈핵실크로드 순례길을 설명했다.

학생들이 질문한다. "핵무기와 핵발전소 가운데 무엇이 더 위험한가?" 필자는, "핵무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핵전쟁도 불사할듯이 공포스런 분위기이지만 두사람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멈출 수 있다. 위험하긴 하지만 인류의 통제 아래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큰 지진이 나면 터진다. 지진은 인류가 뜻대로 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는 합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진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필자가 추가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주변 수십킬로미터는 영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수백킬로미터까지 농산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되기 쉽다는 설명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필자는 "한국과 대만은 원전이 많지만 탈원전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중국은 여전히 늘리려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있다. 라오스와 인접한 베트남이 원전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그 소식을 처음 접하였던지,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없애는 일을 시작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마무리해가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다. 왜냐하면 원전 하나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 줄잡아 50년쯤 걸린다. 지구촌 450개 모두를 해체하려면 합의하는 시간도 걸리고 최근 지은 것까지 없애려면 백년은 넘게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할 일이 많다."

눈빛 초롱하게 엄숙한 표정을 짓던 그 학생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건 인류 모두의 사업이다.

### '날 적마다 좋은 국토, 핵발전소 없는 국토'

걸으면서 만난 일행에게 필자가 설명한 것이 기억난다.

"지금 원전해체 시장이 엄청 큽니다. 전 세계 핵발전소가 445개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로는 향후 50년간 1000조 원 시장이 형성될 거랍니다. 연간 20조 원 시장이죠. 이 주제로 3년 전에 불교계와 원불교계가 공동주최로 국제 세미나도 개최했지요. 수명이 다한 원전의 조기 해체를 유도함으로써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가는 전략으로 말입니다."

요즘 정부가 원전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니 그때 뿌린 씨앗이 크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하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

필자가 자주 들고 다니는 현수막 가운데, '날 적마다 좋은 국토, 핵발전소 없는 국토'라는 구절이 있다. '날 적마다 좋은 국토'는 새벽예불을 올릴 때 읽는 '이산혜연선사의 발원문'에 있는 구절이다. 방사능 오염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지속된다. 윤회로 새 세상에 태어나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세상을 만날까봐 두렵다.

도보순례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효과가 훨씬 크다. 하지만 혼자 하는 순례도 나름의 효과가 있다. 걷는 리듬을 타고 가다 보면 명상을 하기 쉽다. 좌선과는 다르다.

문득 걸으면서 더욱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원전을 찬성하는 이들은, 지금 후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본보기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자식에게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전례를, 보여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하루빨리 일깨워 주는 것, 그게 불교계의 임무가 아닐까?



이원영(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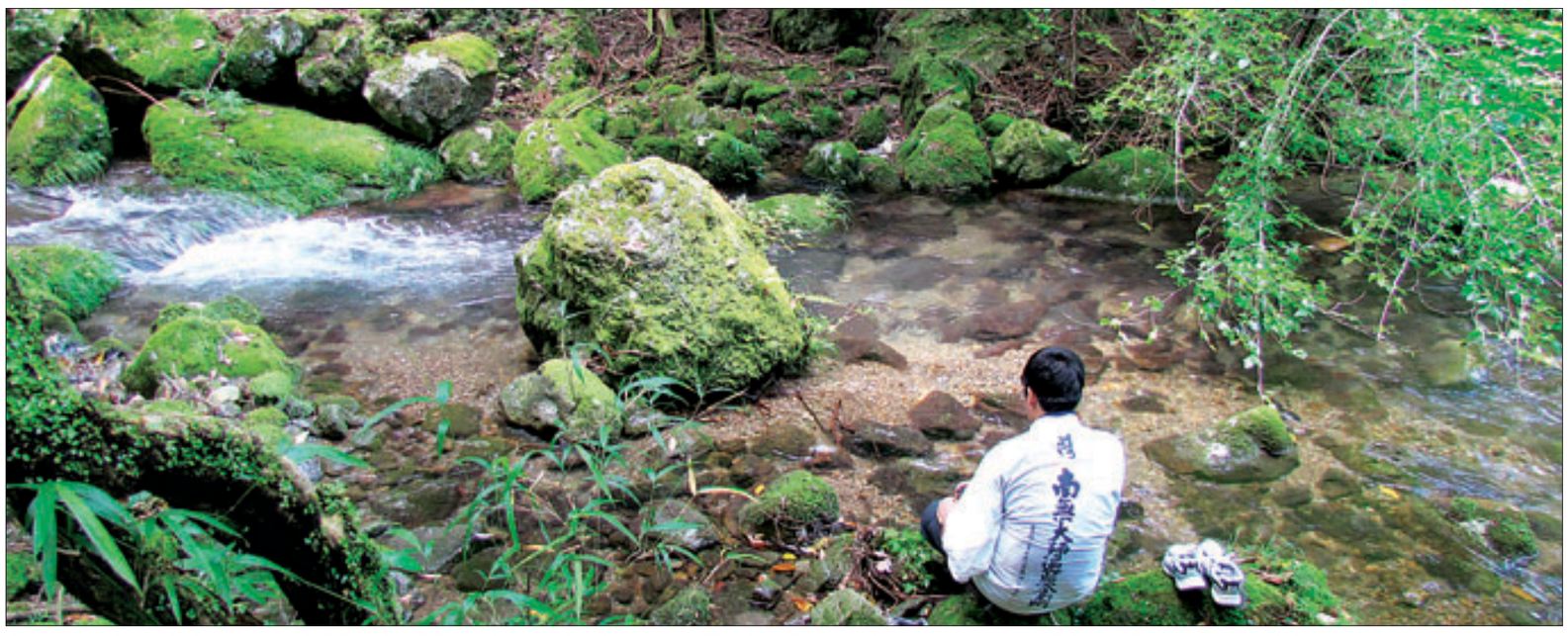


# 산 두 개 넘는 고행… 大師 함께 하니 '든든'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⑦ 20~21번 사찰 가는 길



21번 사찰 타이류지로 가는 길. 한 순례자가 와카스기타니(若杉谷)의 계곡에 발을 식히고 있다. 순례길 곳곳에서 만나는 비경은 순례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오셋타이로 받은 바나나 품고**
**굽이굽이 순례길을 따라간다**

**코보 대사 연기설화 담긴 사찰**
**인근 계곡서 발 담그고 '忙中閑'**
**펼쳐진 비경은 순례자만의 특권**

**순례의 Tip**

- 오셋타이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거절해선 안 된다. 다만 자동차로 태워주겠다는 오셋타이 만큼은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다. 오셋타이를 받고나선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오사메후다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자.

- 금색이나 비단 오사사메후다를 얻기 위해 각 절에 있는 후다 상자를 뒤적이는 등의 행위는 금지! 단, 상자위에 놓여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다.

- 21번에서 22번 사이에는 가게나 식당이 없다. 도시락을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이른 아침 도로에 비친 순례자들의 그림자.

새벽녘의 으스스한 한기에 눈을 뜬다. 찌뿌둥한 몸을 움직이며 지도를 펴본다. 오늘은 산을 두 개 넘어 22번 뵤도지(平等寺)까지 가야한다. 20번 카쿠린지(鶴林寺)와 21번 타이류지(太龍寺)는 모두 산 정상 근처에 사찰이 있어 오르는 것이 녹록치 않다.

다른 헨로고로가시들에 비하면 편한 길인 것은 사실이지만, 차라리 산길이 계속 되면 모를까 해발 500m 가량 되는 산을 올랐다가 다시 마을까지 내려간 후 비슷한 높이의 산을 올라야 두 절을 모두 참배할 수 있다.

아침을 먹고 출발할지 고민하다가, 3km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 그곳까지 가서 생각하기로 한다. 지난밤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하며 오사메후다(お納札)에 이름을 써서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

오사메후다는 각 절을 참배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과 주소, 소원을 써서 올리는 종이쪽지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통으로 순례의 횟수에 따라 색깔과 재질이 바뀐다. 보통 처음 순례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흰색 오사메후다가 가장 많이 보인다.

종종 금색 혹은 비단으로 만든 오사메후다를 볼 수 있는데 이는 100회 이상 순례한 순례자들의 것이다. 시코쿠 순례 중에 이것을 구하게 되면 순례길의 안전을 보장하는 호신부가 되고, 아픈 이의 베개에 넣어주면 병이 빨리 낫는다는 등 영험담이 전한다.

아직 밤의 시원한 기운이 남아있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 외진 시골길이라 차는 보이지 않고, 멀리서 꾀꼬리 소리만 울려댄다. 한 40분을 걸어 편의점에 도착한다. 그래도 제법 큰 마을이라 학교도 있고 가게도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아침을 여기서 먹겠다는 계획과 달리 배가 그리 고프지 않아 그냥 지나쳐 순례길을 따라 걷는다.

다시 3km 정도를 가니 작은 가게가 나온다. 작은 냉장고에 음료수와 우유 몇 종류가 들어있고, 철제 선반에 과자와 생필품에 쌓여있는 것이 딱 우리나라 동네 점방이다.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가 나와 청소를 하시다가 나를 보곤 인사를 하신다.

"오헨로상! 이른 아침부터 걷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준비를 하시네요?"

"나야 아침 먹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침은 먹었어요?"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앞으로는 아직 문을 연 식당이나 가게가 없을 텐데요?"

"하하, 그냥 적당히 먹을까 해요."

"어머나, 그러지 말고 여기 바나나 하나 가져가요. 오셋타이할게요!"

선반에 있던 바나나 한 송이를 덥석 집어 주신다. 시코쿠 순례길에서 오셋타이를 거절하는 것은 큰 실례이기에 일단 받고 본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미리 써둔 오사메후다 하나를 드린다. 할머니께선 앞치마로 손을 닦으시곤 합장하신 두 손으로 오사메후다를 받으셨다.

"어머, 특이한 오사메후다네요? 근데 '세이큐노 쿠니(靑丘國)'가 어느 지방인가요?"

"아, 한국을 부르는 옛 이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건 제가 그린 오사메후다입니다."

"어머! 일본인인줄 알았어요. 대단하네요, 직접 이걸 만들어 오다니."

"무슨 말씀을요, 바나나 감사합니다."

바나나를 담아주신 봉투를 배낭 옆에 묶어 매고 다시 길을 걸어간다. 10분 정도 걸으니 등산로 입구에 들어섰다. 슬슬 배가 고프기도 하고 해서 아침을 먹고 이동하려다가 1km 정도만 더 걷기로 한다. 생각해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다.

등산로 입구부터 급한 오르막을 낑낑대며 오르니 처음 보는 휴게소가 번듯하게 서있다. 둘러보니 2~3명이 노숙하기에 좋아 보인다. 물과 화장실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산길을 향해 올라간다.

계획한 일정은 200고지에 있는 미즈노미 다이시(水呑大師). 전설에는 코보 대사가 이곳에 지팡이를 꽂아 샘을 내셨다고 전한다. 돌로 만든 작은 대사당이 있고, 쉴 수 있는 공터도 있다. 2010년에는 여기서부터 21번 타이류지까지의 길이 '아와 헨로미치(阿波遍路道)'라는 이름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길 자체가 중세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거니와, 중간 중간에 있는 석불들 중에는 14세기 경에 조성된 것도 있다고 한다.

미즈노미 다이시 앞에 있는 벤치에 배낭을 풀고 허리를 쭉 편다. 입에서 절로 신음소리가 튀어나온다. 대사당 밑으로 코보 대사가 팠다는 샘이 시원하게 흘러나온다. 한 바가지 물을 받아 마시고 물통에도 채운다.

아침으로 아까 받은 바나나를 먹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저기 뭉개져 있다. 잘 익은 바나나를 배낭에 아무렇게나 묶어둔 까닭이다. 어쩐지 작은 파리와 벌이 계속 꼬인다 했더니 이 바나나 냄새를 맡았나 보다.

배낭에서 생강편을 조금 꺼내고 바나나와 함께 먹는다. 물소리에 매미소리, 인적 없는 숲속에서 먹는 아침이란 천상의 공양이 따로 없다. 바나나 껍질은 벌레들에게 줄 요량으로 멀리 숲속으로 던지곤 다시 배낭을 둘러맨다. 대사당의 향로에 향을 하나 꽂고 손을 모은다.

"대사님 덕분에 이런 길을 제가 걷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대사님 덕에 시원한 물을 마시고, 바나나도 보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20번 카쿠린지까지는 약 1.5km. 평지라면 넉넉잡고 40분 남짓한 걸음이지만 산길이니 넉넉잡고 1시간 30분을 올라야 한다. 잘 닦인 산길을 오르다 보니 저 아래 찻길에서 버스가 올라오는 게 나무 사이로 보인다. 단체 순례자들의 이야기 소리도 들리는 것을 보니 사찰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키쿠린지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학과 관련된 연기설화가 전한다. 코보 대사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암수 두 마리 흰 학이 거대한 삼나무 위에서 춤을 추며 내려왔다. 이에 대사가 나무를 찾아가니 두 학이 날개를 펼쳐 작은 지장보살상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환희심을 낸 대사는 큰 지장보살을 직접 조각하여 모시고 학이 지키던 지장보살상을 복장으로 넣어 모시고 사찰을 세운 것이 카쿠린지의 시작이다.

이야기 속의 삼나무는 지금도 본당 뒤에 당당히 서있고, 본당 앞엔 암수 두 마리 학을 세워 그 공을 기리고 있다. 또 납경의 도장으로도 학의 그림이 들어가 있다.

카쿠린지 참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은 올라온 길만큼 가파르기 그지없다. 중간에 쉴만한 자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저 가파른 내리막 길만 야속하게 이어진다. 발바닥에 슬슬 불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날 즈음에 차도와 만난다. 차도를 건너 역시나 급경사의 계단을 내려가니 드디어 쉴만한 곳이 하나 나온다.

작은 신사인데도 수도가 나오고, 청소가 깨끗한 것을 보니 마을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간단한 안내문을 읽어보니 무예의 신을 모시고 있단다. 일단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고 맨발에 수돗물을 끼얹는다. 이렇게라도 식히지 않으면 발에 물집이 잡혀 걷기 힘들어 진다. 더욱이 다시 산을 올라야하니 만큼 발을 잘 식혀줘야 한다.

가쁜 숨을 고르고 있으려니 배가 고파온다. 그래도 조금 더 걷고 밥을 먹기로 하곤 다시 일어선다. 여기서 강을 건너 1.3km 정도 가면 근사한 휴게소가 있기 때문이다.

시원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순례길은 참 각별하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여기저기 피서객들이 고기를 굽고 시끌시끌하겠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온다. 일본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피서하는 풍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례길은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 오롯이 도보 순례자들의 별경이다.

목표했던 휴게소에 배낭을 내린다. 옛날 우리나라 공원들처럼 나무 모양으로 칠을 한 시멘트 휴게소지만 이끼가 파릇하게 껴서 주변과 퍽 어울린다. 배낭에서 바나나와 미숫가루를 꺼낸다.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뭉개져 있는 바나나들. 내일까지는 이것으로 버티려 했는데 지금 다 먹어야 할 판이다.

바위에 앉아 발을 계곡물에 첨벙거리며 점심을 먹는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정신이 번쩍 든다. 시간을 헤아려보니 오늘은 22번 뵤도지까지는 무리일 듯하다. 그냥 느긋하게 쉬어 가기로 한다.

뵤도지 대신에 숙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려니 지팡이 딛는 소리가 난다. 고개를 돌려 길을 보니 며칠 전 길에서 만난 프랑스인 순례자와 일본인 순례자가 같이 오고 있다. 둘 다 여기서 점심을 먹을 요량이란다. 같이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한다.

"어제는 다들 어디서 묵었어요?"

"어제는 다츠에지 옆의 역에서 같이 노숙했어요, 오늘은 타이류지까지 가려구요"

"저랑 같네요. 오늘 어디서 잘지 정했어요?"

"아니요, 대사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죠!"

모두 한바탕 웃으며 "코보 대사님께서 굽어 살피소서"하며 배낭을 짊어진다. 타이류지까지 약 3km, 역시 험한 산길이지만 뜻밖의 동료들이 있으니 든든하기 그지없다.

〈자유기고가〉



# 정당한 대가 지불은 공정사회의 시작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 ⑲ 부처님이 설한 돈과 인간관계




그림 · 박구원

'돈이 양반'이라는 말이 있다. 돈은 인간관계마저 변화시킨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여성적인 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유명한 구절이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중범죄의 대부분은 남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여자도 나쁜 짓을 하지만 악랄한 인간은 대부분 남자다. 비구 사찰은 부정이 많은데 비구니 사찰은 상대적으로 부정도 적고 깨끗하다고 하니 사실인지 한 번 조사해볼 일이다. 즉 돈에 있어서 비구니 사찰이 더 투명하고 정직하다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남자가 훨씬 못된 인간 같다. 오랜 기간 동안 남자는 강자였고 여자는 약자였기에 남녀관계는 평등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자는 여자를 착취한다는 관점에서 남녀관계를 파악하기도 한다. 최근 남녀관계의 변화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성이 경제력을 갖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돈에 의해 인간관계가 달라지며 남녀관계도 그 중의 하나다.

인간관계 중에서 경제관계는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다. 아무리 좋던 사이도 돈 문제가 얽히면 본성이 드러난다. 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라는 말과 함께 사람을 소개 받으면 속으로 '돈으로 겪어보지 않고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차마 이런 말을 겉으로 내뱉을 수 없기에 '겪어봤습니까?'라고 묻는 게 일반적이지만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돈 문제로 겪어봤습니까?'이다. 돈이 얽히면 부모 형제 자매 사이도 험악해진다. 돈 앞에는 뭐든지 무너진다. 온통 세상은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바람직한 경제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서로 정당한 대가를 교환하는 경제관계가 답이다. 즉 남으로부터 재물과 이익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며 마음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 〈별역잡아함경〉은 "남에게 좋은 음식 받았으며, 또는 재물과 이익을 받았으면서, 그이가 자기의 집에 오면, 보답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내지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면, 그를 업신여김 받는 첫머리라고 말하네."고 설한다. 〈잡아함경〉은 "풍족하고 맛나는 남의 음식 받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그 재물 아껴, 남의 것 먹고도 갚지 않는 것, 그것 곧 지는 문에 떨어짐이다."고 설한다.

어떤 부자가 내가 잘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 워낙 신뢰, 원칙 등을 운운하다보니 그 변호사가 구두 계약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나는 옆에서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에 이기자 "네가 한 일이 뭐냐?"라고 따지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대가를 받았음에도 안면 몰수하고 공짜로 변호사를 부려 먹은 것이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마저도 이런 식으로 속여 먹으니 평범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판판히 당한다. 언젠가 은사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나에게 흥미 있는 조언을 했다. '내가 살아보니 애국심, 신뢰, 원칙 등을 강조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더라구' 최순실이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단어가 '믿음, 신뢰'였다는 것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은사님 말이 맞았다.

가장 첨예한 경제관계 중 하나가 노사관계이다. 〈중아함경〉은 "상전은 다섯까지 일로써 종이나 하인을 가엾이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구제하여야 하나니 . … 첫째는 그 힘을 따라 일을 시킨다. 둘째는 때를 따라 먹인다. 셋째는 그 힘을 따라 마시게 한다. 넷째는 날마다 쉬게 한다. 다섯째는 병이 나면 약을 주는 것이다. … 만일 사람이 종이나 하인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면 반드시 흥하고 쇠하지 않느니라."고 설한다. 부처님은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지시하면서 사미에게도, 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도 그들이 일을 하면 돈을 지불하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사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전은 아랫사람의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되 음식, 휴식, 의료복지 등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성실과 상호 사랑으로 맺어져야한다.

비록 출가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지만 부처님은 교단에서 축출된 비구는 물론이고 외도, 속인과도 경제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지시하고 계시며 심지어 음식도 주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나 병자, 어린이, 임산부 등 약자에게는 예외를 허용하고 외도, 속인이 다쳐서 죽어갈 때에는 당연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외도, 속인과 경제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비의 종교라는 불교답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잘못된 경제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잘못된 인간과는 절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관계를 맺게 된다면 거래가 공정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법에 의존한다면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 '글쎄 그 놈이 법대로 하자고 하네요'라는 말은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은 멀어야 되고 가능하면 법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맞는 말이지만 사람 사이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싸우기에 양보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어떤 변호사가 '법대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절대 해결이 안되거든요.'라고 말했는데 나도 공감할 때가 많다. 그래서 주변에 돈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법에 의해 해결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한국은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보니 만약 엄격하게 법대로 하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겨난다. 현실은 법과 달리 돌아가는데 갑자기 법을 들이대면 못된 놈이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노조가 파업할 때 '준법투쟁'이라는 것을 한다. 법대로 지하철 차량을 운행하면 운행속도가 엄청 느려진다는 것이다. 즉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보니 법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금전 앞에 드러나는 인간관계**
**잘못된 경제 관계가 인간관계로**
**공정한 제도로 정법 사회 구축해야**

한국은 판사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서면위주의 5분 재판'이다. 판사의 업무량이 과다한 탓인지 잘못된 판결도 많고 1심에 승복 못하는 비율도 높다. 판사를 그만두고 개업한 어느 변호사가 '제가 판사할 때는 몰랐는데 변호사 해보니 판사의 판결이 문제가 많더라구요. 판결문 몇 줄로 끝내는 판결이 있는데 너무 해요. 이게 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라고 한다. 변호사회에서 끊임없이 판사를 증원하라고 해도 법원은 아주 조금만 증원해서 비판을 받는다. 판사출신 변호사 숫자가 늘면 손해라는 생각에서 그런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옆집과 담장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면 각자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우도록 하고 막상 당사자들은 길에서 마주쳐도 소송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 즉 강아지는 잘 크냐, 정원의 나무는 잘 자라느냐 등의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 이런 방식의 갈등해결은 내가 보기엔 지혜롭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 당사자들이 다투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대화는 각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장이 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은 남의 일이라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야 하니 더 객관적이 된다.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하다보니 소송 만능이라고 하지만 나는 법적 해결이 좋다고 느낀 경우가 참 많았다.

만약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를 꽃 피우고 싶고 소득의 증가를 원하고 부자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법치국가부터 되어야 한다. "바른 법(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온 나라 안에 법 아닌 것이 행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곧 '내가 다스리는 것'이라 한다."

부처님은 〈장아함경〉에서 불교의 법치국가관을 설하고 계신다. 불교에서는 법치국가라는 단어대신 정법국가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 법치국가라는 단어보다 정법국가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악법도 법이라고 국민을 탄압하던 독재국가 시절의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법에 의해 처벌 받았기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독재자들에게는 전가의 보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보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악법을 어떻게 봤을까? 부처님은 악법도 지켜야 한다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잘못된 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단어 대신 정법 즉 바른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속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거래에 담보를 제공하고 공증하고 보증금을 치루어야 한다. 정부가 사법제도를 통해서 거래가 최소의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자유시장경제가 꽃 피울 수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법을 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여 실제 끼친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잘못하여 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600억, 1000억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100억원은 손해받은 당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편입한다.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주장이 오랫동안 주장되었으나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제야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한다.

구태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할 것도 없이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도 법을 잘 운영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면 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잘못된 법 조항을 조금씩이라도 개정하여 바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법 사상에 의하면 잘못된 법은 국민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악법을 강요하는 정부에게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악법을 바른 법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바른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법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가장 완벽한 수행법은 관음의 이근원통

〈耳根圓通〉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㊱ 능엄경(楞嚴經) 3

아난은 참 행복한 수행자였다. 〈능엄경〉을 보면서 부처님이 정말 아난을 아끼고 사랑하신 모습이 그려져 맘 한 편에 이런 부러움이 생겼다. 항상 법문만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았던 탓에 유혹에 빠진 아난을 구하시고 그를 가르쳐 확고한 수행인을 만들어 가실 때, 아난을 유혹했던 마등가녀의 딸에게도 평등하게 그 길을 일러주고 출가시키는 모습에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진다. 모든 경전은 '서분', '정종분(본론)', '유통분'의 구조를 갖추는데 〈능엄경〉 역시 정종분에서 그 수행과정에 따라 '견도분', '수도분', '증과분', '결경분', '조도분'의 5단계가 있다. 아난이 사마타, 삼마제, 선나의 삼관법문에 대해 질문하자 '견도분'에서 7처증심을 통해 사마타를 설하고 '수도분'에서는 삼마제로 도를 닦는 실체적인 스토리인 25원통수행이 등장한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공덕을 성취하는 '능엄주'가 등장한다. '증과분'은 선나를 설명하며 법무중생들이 실천수행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욕심과 습기가 말라버린 본성의 자리인 건혜지로부터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사가행, 십지, 등각 구경위인 무상도까지의 57단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화엄경〉이라 불린다. '결경분'에서는 〈능엄경〉을 5가지로 알려준다. '조도분'은 도를 돕는 내용으로 말세 참선하는 이가 혹여 길을 잘못 들까 염려하여 미리 참선자의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50가지 마장장애를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십변마장이다. '유통분'에서는 〈능엄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과 부촉을 한다.

아난에게 참마음을 찾기 위한 수행을 사마타, 삼마제, 선나로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 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모든 것에 통달했다는 원통(圓通)을 이룬 25명의 제자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은 나의 법 가운데서 최고를 이루었다. 너희가 처음 발심하여 18계를 깨달을 때, 어떤 근(根)과 계(界)가 원통할 수 있었으며 어떤 방편법문으로 삼마지에 들어가는가."

아야교진여는 녹야원의 설법(聲)을 듣고 가장 쉽고 빠르게(圓通)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한다. 우파니사타는 모습의 부정(色)을 보고 , 향엄동자는 향기(香)를 통해서, 약왕과 약상, 오백범천은 맛(味)의 인연으로, 발타바라보살은 감촉(觸)의 인연으로, 마하가섭과 자금광 비구니는 법(法)의 인연으로 원통을 성취했다고 말한다. 또 아나율, 주리반특가, 교범바제, 수보리, 사리불, 부루나, 우바리, 목건련, 보현보살과 관음보살들이 모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원통을 이룬 때를 회상하며 말씀드린다. 부처님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문수에게 묻는다.

"문수여, 너는 이들의 25가지 원통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리 아난에게 딱 맞는 교육법이 되겠는가. 또 미래의 모든 이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권장할 방법이 있느냐?"

"네. 부처님이시여. 오늘 들은 원통의 법문을 살펴보니 모두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 중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의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근원통(耳根圓通)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으로 염불선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염불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염불소리와 모든 소리에 집중(觀)하고, 이어 '염불소리를 듣는 이를 돌리는(反聞聞性)' 경지에 들어야 한다. 반문문성이라는 것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언어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이다. 회광반조의 의미도 있다. 단순히 염불만 하는 염불선의 경지를 뛰어넘는 오도의 경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원통하는 방법으로는 집중부터 최고라는 문수의 말이 맞게 느껴진다. 고려 때 이자현은 청평사에 이근원통의 수행처를 자연 속에 만들어 놓고 수행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관세음보살은 32응신으로 중생들의 모든 삶에 보호자가 되어 몸을 나투어 언제든지 우리들 곁으로 달려오시니 그 분의 가르침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쉽게 성취할 수 있다는 문수의 판단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관음을 모신 전각을 '원통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래 전 옛날 관세음부처님을 만나 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 때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문사수(聞思修) 삼혜로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반야사 주지〉

# 모두 생각한 기도… 감쪽같이 사라진 쥐와 해충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㉟ 부처님께 정성껏 바친 기도

선지식에게 수도장에 쥐약을 놓지 않고 쥐를 소탕하는 방법을 여쭈었을 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째서 쥐가 그렇게 들끓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쥐의 마음, 즉 빈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니라. 쥐가 싫다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 너희들 마음속에 쥐의 마음인 거지 마음, 거저먹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거지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쥐를 내쫓으려 해도 목장에서 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소개되었을 때 불자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었겠지만, 대구의 어느 절 주지 스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신선했고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신 자신의 난제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님이 계시는 절은 대나무 밭이 있는 야산과 바로 인접해 있기에 절 곳곳에 해충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중에 독충인 지네가 많아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새벽마다 신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신성한 예불시간에도 천정에서 지네가 떨어지니, 법당은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도 지네에 물리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이 난제를 부처님께 바치라는 방법을 듣자마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충에 대한 두려운 생각, 위험하다는 생각 등을 부처님께 정성껏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을 바친다고 정말 지네가 사라질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바쳤지만, 웬일인지 바치면 바칠수록 하루하루 신뢰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 지네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저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새 다시 슬금슬금 지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이 주지스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충이 나타나는 것을 내 마음속의 허물인 줄 알고 정성껏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타나니, 부처님께 바치는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아마도 이만하면 되었다는 분별심을 냈던가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 주변의 다른 일반 가정집에서도 해충 때문에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웃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재차 바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기도법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모든 도량에 해충이 사라져 언제나 밝고 쾌적한 곳이 되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원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즉 내 법당만 깨끗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이 되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모든 곳에 해충이 사라져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진심으로 발원하였더니, 다시 감쪽같이 법당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집에서까지도 해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참으로 깨달은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도에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 마음이 되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늘 씩씩하고 든든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 무비공심(無鼻空心) '이 뭣고'

경허선사의 '무비공심'에 대한 유래는 이렇다. 당시 동은이라는 시자승(侍者僧)의 부친 이처사는 여러 해 동안 수행하여 스스로 깨침을 얻었는데, 어느 날 그 은사인 도일 스님이 이처사를 만나 차담을 하게 되었다.

이처사가 말하길 "중(僧)이 중 노릇 잘못하면 마침내 소(牛)가 됩니다"라고 하니, 도일 스님이 이 말에 "중이 되어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시주(施主)만 받으면, 죽어서 반드시 소가 되어 그 시주 은혜를 갚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이 처사는 꾸짖으며 말했다.

"어찌 사문의 대답이 그렇게 꽉 막혀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에, 여아시위우측위무천비공처(如我是爲牛側爲無穿鼻孔處)라, "어찌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고 이르지 않습니까?"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동학사로 돌아가 참선 수행 중인 경허선사께 이처사의 말을 전해드렸다.

그러자 언하(言下)에 대오(大悟)하시고, 유월연암산하로(六月燕巖山下路) 야인무사태평가(野人無事太平歌)이라 말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홀연이 문득 소(牛)가 되어도 멍에 매는 콧구멍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에 삼천세계가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할 일 없는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라고 하시며 오도송을 남기셨다.

우리의 참성품은 허공과 같아서 거기에는 생사가 없으며, 동정간에 티끌만한 법도 붙을 수가 없는 우리의 본 고향이다.

> "홀연이 문득 소(牛)가 되어도 멍에 매는 콧구멍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에 삼천세계가 내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할 일 없는 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허공 어디에 우리의 자유를 구속할 멍에를 뚫을 구멍이 있겠는가? 포대화상송에 아유일포대(我有一布袋) 허공무가애(虛空無가碍) 전개편시방(展開遍時方) 입시관자재(入時觀自在)라.

즉 "나에게 한 포대가 있으니 허공에 걸림이 없으며, 열어 펴면 온 시방에 두루하고 들일 때에도 자유자재하도다"라고 하였다.

전강 선사께서는 정도(正道)로서 경허선사 오도송의 법루(法漏)를 잡아서 허(虛)를 찔렀다. 바로 '무사태평가(無事太平歌)'라는 것이 법의 때(법루)인 것이다. "돈각삼천시아가"라 깨달은 각견(覺見), '콧구멍 없는 소'의 색견(色見), 이런 '법의 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활구를 법답게 하는 것이다.

전강 스님은 당시 만공 스님께 이렇게 말씀 드렸다.

'유월연암산하로(六月燕巖山下路)'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 구절 '야인무사태평가(野人無事太平歌)'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이겠다고 말했다.

"여여 여여로 상사뒤야"하시며 태평가를 살아 움직이는 활구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농부들이 논을 메며 부르는 가락의 후렴이다. 다시 만공 스님이 물으셨다. "그 무슨 뜻인가?" 그러자 전강 스님은 다시 "여여 여여로 상사뒤야"를 반복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것을 보고 만공 스님께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놀리는 것일세, 참으로 손자가 할아버지를 놀리는 것일세"라고 하시며 인가(認可) 하셨다.

심월고원(心月孤圓) 광탄만상(光呑萬象) 광경구망(光境俱忘) 부시하물(復是何物)이라. 즉 이 말은 "마음달이 뚜렷이 밝아서 그 빛이 만상을 삼켜버렸네, 빛과 경계를 모두 놓아 버리니 다시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란 뜻이다. '이 뭣고'라고 하시며 열반송을 남겨셨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 익산 관음사 청년회 공양미 콘서트 개최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공양미 콘서트를 통해 모연한 자비의 쌀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관음사는 9월 28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회 공양미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날 모아진 공양미 1,500㎏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익산시에 전달했다.

관음사 청년회 주관으로 열린 공양미 콘서트에는 덕림 스님, 주영호 관음사 신도회장,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 정헌율 익산시장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가릉빈가 불교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연 공양미 콘서트는 관음사 청년회 중창공연, 관음사 어린이 풍물단의 공연에 이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요열전이 펼쳐졌다.

이강자 관음사 청년회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관음사 관음전의 신축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덕림 스님은 "시민이 기부하고 시민에게 베푸는 화합의 장을 열어 모두가 흐뭇한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아 공양미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천태종 대구 대성사 창립 51주년 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창립 51주년 기념 대법회를 10월 1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前총무원장 춘광 스님, 원로의원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윤수현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신념으로 배워 올바른 믿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력과 서원을 세워 바로 믿고, 바로 알아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 볼 줄 아는 공덕으로 두루 법계에 회향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사부대중은 열심히 더욱 수행정진해 부처님의 복덕으로 대구시민의 편안한 화합의 장이 되고,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귀의처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 특별수행원으로 천지 방문 감동
### 백두산 올라 남북불교교류 발원
### 남북불자들 北사찰서 만남 기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 백두산 천지에 손을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거듭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백두산에 오르고, 천지 물을 만졌다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 평양서 진행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종교를 비롯한 각 분야 대표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단이 동행했다. 불교 대표로 참가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이하 민추본) 원택 스님은 10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원택 스님은 2박 3일 간 일정 중 백두산 천지 등정〈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다. 스님에 따르면 20일 새벽, 순안공항서 삼지연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 내리던 비는 삼지연에 도착하자 이내 그쳤다. 이윽고 환한 해가 뜨자 경직된 현장 분위기도 차츰 부드러워졌다는 후문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장군봉으로 오른 뒤, 다시 차로 이동해 천지호수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꿈만 같았습니다. 그 물을 얼굴에 적시면서 하루빨리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남은 많은 북한의 폐사지를 복원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발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빛나는 조국'이란 제목의 카드섹션 및 율동 공연도 인상적이었다고 스님은 말했다. 19일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서 1시간 15분 가량 펼쳐진 공연에는 15만 관중과 1만 4300명의 평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했다.

"16년 전 '아리랑' 공연이 위압적·전투적이었다면, 이번 공연은 평화와 발전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내용이었습니다. 공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중을 향해 연설하자, 북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추본과 원택 스님은 대북사업 구체화 및 조불련과의 협의를 위해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측 만남을 염두에 두고 관련 브리핑을 준비해갔다. 그러나 평양에 파견된 특별수행원들의 활동은 제한적이어서 북측 관련단체와 연락이나 대화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안내인에게 몇 번 조불련 관계자와 대화할 수 없는지를 물었는데, 다음날 돌아온 답은 '강수린 조불련위원장이 스님의 평양방문을 환영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는 전화가 있었다'는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제가 평양서 들었던 조불련에 관한 유일한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민추본은 조불련과 4년 만에 8·15 남북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또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11주년을 맞아 300여 불자들과 방북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추본 측은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는 한편, 조불련 편에 답신이 오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신계사 복원 기념행사도 고려하고 있다.

원택 스님은 김 위원장, 그의 부인 리설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세 사람과 악수하면서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남북불교계를 포함한 민간교류의 폭을 확대되는 날이 속히 오길 발원했다.

# 자현 스님 "승려노후복지 초석 다질 터"

##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에 취임한 자현 스님이 승려노후복지에 역량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자현 스님은 10월 4일 고운사에서 봉행된 주지 진산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임기 안에 고운사 본말사 재적승, 재직승들을 위한 노후복지의 초석을 반드시 다지겠다"며 "공심으로 교구를 이끌어가겠다. 대중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각 사찰마다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함께하는 본말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진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산식에 동참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고운사 교구에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고찰이 많다. 교구 전체가 민족문화의 보고이며, 온전히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진산식의 향기가 종단 곳곳에 퍼져 혁신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상북도의 불교문화가 꽃피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도록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도지사로서 문화관광사업 진흥 등을 통해 고운사 발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운사 주지 진산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회주 혜승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김재원·김광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발우공양·사찰음식 伊서도 '인기'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슬로푸드 축제 참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9월 22~26일 이탈리아 '세계슬로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해 미식과학대학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연을 실시했다. 사업단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공식 프로그램인 '맛 워크숍'에서 수행자의 전통식사법인 발우공양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발우공양 워크숍'을 운영했다.

윤호섭 기자

## 송월 스님, 군산교도소 불상 봉안

### 재활관 재소자 위한 수계법회도 봉행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은 9월 27일 군산교도소 재활관에서 불상 봉안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관음사 도천 스님, 은적사 석초 스님, 성흥사 보위 스님을 비롯해 불교교정위원과 재소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봉안된 불상은 송월 스님이 재소자들의 신행생활을 돕기 위해 사재를 털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이주노동자, 겨울 감기 뚝!"

### 마하이주민센터, 9월 30일 무료 예방접종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 산하기관인 구미 마하이주민센터는 9월 30일 센터 마당서 이주노동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실시했다. 행사는 박미애 가정의학과의 전액 후원으로 진행됐다. 구병화 센터장은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감기에 취약한 상태로 지낸다"며 "2013년부터 겨울철을 앞두고 도움 주시는 의사분들 덕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은 군승 파송 50주년!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外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국방부 원광사 內 ☎ 02)797-7266,749-8646 www.gunindr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숙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Tel 02-356-2001 Fax 02-359-6297




## 국민화합 기원하는 알록달록 국화 만발

### 삼광사 희망나눔 국화문화축제

국민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국화가 삼광사 도량을 가득 채웠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는 '희망은 UP, 행복은 Together'를 주제로 11월 15일까지 부산시민을 위한 '제2회 국민화합 희망나눔 국화문화축제'를 경내에서 개최한다. 삼광사는 축제기간 동안 1만여 국화화분을 이용해 다양한 조형물과 포토존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삼광사는 10월 1일 주지 세운 스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축제 개막 테이프 커팅〈사진〉을 진행하고 국화로 장엄된 도량을 시민들에게 활짝 개방했다. 또, 10월 31일 오후 6시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화합 어울림한마당'도 개최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 생명나눔 희망의 길을 걷다

### 제10회 희망세상 걷기대회

1,200여 명의 부산시민들이 생명을 위한 희망 나눔에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0월 3일 부산시민공원 일대에서 '제10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본부장 원범 스님의 대회사에 이어 휠체어 전달식 및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휠체어는 보훈병원 및 부산의료원 등에 총 6대를 전달했으며 환자 및 가족들도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해 생명나눔 활동의 의미를 전달했다. 걷기대회 후 특별무대에서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경품 추첨도 이어졌다.

원범 스님은 "환우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이렇게 화창한 날 모두가 동참해 함께 걷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행사에는 본부장 원범 스님, 부본부장 자인 스님, 이사 성문 스님, 이승표 前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주인공 에너지로 행복한 부모 돼요"

### 한마음과학원, 9월 한 달간 부모교육 프로젝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제가 부모님에게 듣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였어요.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끝내 못 듣고 서러운 어린 제가 울고 있는 게 보여요."

테이블마다 조별로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이들이 한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들은 한마음과학원의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 프로젝트에 참가한 부모들이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눈물이 흐른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왜 이렇게 마음 같지 않을까?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9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5회에 걸쳐 부모교육 프로젝트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좋은 부모이기 이전의 자신을 바로 보라는 주문을 먼저 받았다. △괜찮아(공감하고 위로하기) △다그치지 말아요(부모와의 관계&자녀와의 관계) △평가하지 말아요(나에 대한 이해) △쉼(고정관념과 쉼에 대해서) △우리, 안아줘요(자녀와의 지혜로운 소통) 등 각 주의 주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면서도 출발점은 언제나 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에 있었다.

9월 8일,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만난 어린 아이는 울고 있었다. 너무 아파서 외면해왔던 내 안의 나를 비로소 대면하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안의 상처를 보듬고자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따뜻하게 공감하고 서로를 꼭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다. 내 안의 나를 이해하고 내 아이를 안아줄 품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내 방식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상처가 보이니 지금 아이에게 주고 있는 상처도 보인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이야. 너를 사랑해."하고 자주 말하리라는 다짐이 새롭게 선다.

**주인공, 행복한 부모 되는 힘**
**대물림 훈육 벗어나 자유로운**
**새로운 자각 훈련 실생활 적용**

그 다음 단계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온 습관을 마음의 용광로인 주인공에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이 연습 과정들은 한마음과학원에서 편집한 교재에 기록한다. 그 교재는 노트식으로 대행 스님의 법어 '마음으로 다스리는 글'과 함께 스님의 법문이 구체화돼 부모들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돕는다. 또, 교재 속에는 안아주기, 심부름, 원하는 요리 해주기 등 사랑쿠폰이 담겨 실천의 즐거움을 높였다. 쿠폰을 받아든 아이나 남편, 아내는 쿠폰을 사용하며 가족만의 특별한 이벤트로 행복을 나눴다.



한마음과학원은 9월 한 달 동안 부모교육프로젝트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좋은 부모이기 이전의 자신을 바로 보라는 주문을 먼저 받았다.

마지막 강의에서 부모들은 모두 소감을 전하며 "한 달 동안 새로운 변화를 맛보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공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수현 씨는 "그동안 첫째보다 둘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안아주기를 실천하며 큰 딸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됐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인정 씨는 "사실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더욱 공부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며 공부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교육에 참가한 부모들을 위한 스님들의 격려도 이어졌다.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혜찬 스님은 "알아차림, 자각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가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한마음에너지로 둘 아니게 소통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며 "아울러 부모가 자기 존재의 뿌리인 한마음 자리에서 일체를 들이고 내는 수행으로 당당한 삶을 이끌어 갈 때, 아이의 가는 길도 저절로 밝아지게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1996년 설립됐다. 마음의 원리가 물질로 나투는 도리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증명해 보이는 심성 과학의 중요성을 일찍이 설파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따라 연구, 교육, 사회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는 한마음과학원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이밖에도 한마음공생실천, 아버지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 꽃무릇 아래 사찰-마을 '지역상생'

### 고창 선운사, 9월 29~30일 보은염 이운 등 선운문화제

붉은 꽃무릇이 양탄자를 펼쳐놓은 듯 온 산하가 붉게 물든 고창 선운사에서 전북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선운문화제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9~30일 선운사 일원에서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선운사의 오랜 역사와 전통, 사시사철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사찰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조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선운문화제는 꽃무릇 시화전 및 시상식, 역대 조사 스님들에 대한 헌다례, 석씨원류 경판이운식, 보은염 이운식,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앞서 만세루에서 열린 꽃무릇 시화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선운문화제는 부도전에서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공덕을 기리며 차를 공양하는 헌다례가 진행됐다. 도량에서는 불자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석씨원류 경판을 머리에 이고 화엄법계도를 따라 도는 경판이운식이 재연돼 장관을 연출했다.



선운문화제에 참가한 스님과 불자들이 석씨원류 경판이운식을 하고 있다.

또 선운사 창건주 검단선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잇게 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1,500년간 봄과 가을에 선운사에 소금 2가마니를 공양한 '보은염 이운식'도 열렸다.

초저녁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선운사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전통 타악공연을 시작으로 팝페라 가수 한아름이 주옥같은 가을 음악을 불렀고, 퓨전국악 밴드 하나연은 국악과 팝의 앙상블을 연출했다. 또 재즈 탭댄스 공연, 뮤지컬 갈라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말로밴드가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밤을 재즈의 향연으로 이끌었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만세루 앞에서 스트릿 국악공연이 펼쳐졌으며 투호체험,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 체험과 국악 버스킹 공연이 열렸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찰VR체험, 전통문양 그리기, 단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화엄사 문중 아우른 두 스승의 삶

### 구례 화엄사, 도강 · 도천 스님 유품전시회

현대 화엄사의 두 기둥이었던 도강(1922~1984) · 도천(1910~2011) 스님을 추억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성보박물관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도광, 도천 대종사 유품 전시 특별전'을 개최하고 두 스님의 가사를 비롯한 수행도구와 생활용품 등 100여 점의 유품을 전시한다.

2일에는 명선 스님(화엄사 문장)과 덕문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문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재와 특별전 개막식, 부도 헌다례가 진행됐다.

전시회는 두 스님의 수행 생활을 볼 수 있는 가사와 발우, 금강경, 법어집을 비롯해 도자기, 시계, 북, 징, 도장, 염주 등 생활용품이 전시됐다. 특히 대한불교(현 불교신문) 창간호, 화엄사본말사법(1927년),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태고사법(1941), 사진 등 종단관련 중요서류도 함께 전시한다.

평생 도반으로 수행했던 도강, 도천 스님은 "상좌를 받더라도 누구 상좌 할 거 없이 같은 문도로 살자"는 화합의 정신을 후학들에게도 강조해 화엄사에서는 두 스님의 유지를 받아 함께 추모재를 올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회에서 도강 · 도천 스님의 사진과 유품을 돌아보는 화엄사 스님들.

도광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동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도천 스님과 함께 담양 보광선원을 창건하고 백양사, 범어사, 화엄사, 해인사 주지 등을 지냈으며, 지난 1984년 세수 63세, 법랍 47세로 원적에 들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이자 화엄사 조실을 지낸 도천 스님은 2004년 해인사에서 종단의 최고 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를 받았으며, 2011년 충남 금산 대둔산 태고사에서 법랍 73세, 세납 101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지 월서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14 전화 02)919-0211 팩스 02)919-0216
www.bongguk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
사부대중일동
종무소 033)462-6969 템플스테이 연수원 033)462-5565,5035
www.baekdamsa.org | baekdamsa.templestay.com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좋은 벗이란 고락을 함께 하고 이익을 나누며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한다.

〈선생자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 불 화

- 작품성이 뛰어난 칠성여래보살도,염라대왕도 필요하신 분 (조건부)
- 칠성여래보살도 : 조선말. 194cm×177cm
- 염라대왕도 : 중국산, 300여년전 작.95×185

010-5021-2391

##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 기도와명상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 초급 · 중급반 | 상 급 반 |
|---|---|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 범음범패 교육도량

각단예불 및 천수바라
육법공양무(작법)나비무
법고,송주북,정근북

**사찰행사 문의**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 육임선봉문, 귀장술 배우실 분

누구나 도인이 될 수 있다
육임 단기간 3개월 코스로
성공의 기회
정확한 점괘를 뽑을 수 있다
신을 받아도 상담이 안되시는분
절 포교에 힘드신 스님
모두 연락주세요
**학장님** 010-8973-7994
**무 산** 010-9150-0029

##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 명 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 신을 움직이게 한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박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부터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 박사 강성진 교수**
010-4844-7002

##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분 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 정치외교학
2. 경제학
3. 문화예술학
4. 철합,문학
5. 종교학
6. 체육학
7. 대체의학

상담 : 070-8844-2030

##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 특수 치방

**(1)유방암 (2)편도암 (3)식도암 (4)갑상선암**

암 질병에
고생하시는 불자님
성심껏 돌봐 드리겠습니다
010-4547-0023
카톡 ID : MRS7740

##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냄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 | |
|---|---|
|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누가? 몇일? |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용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br>◆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br>◆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 |
| 수강료 |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br>◆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br>◆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함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현세에 곧 보살이라 항하사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했다고 하시니라.

〈 원각경 〉




## 이박사 공인사무실 이전
(www.이박사.com)
- 그동안 서울 사무실 방문 스님 감사 드립니다.
- 사찰전문 이박사 원주시로 이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직통: 이박사손전화)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48.성일아파트상가108호(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 사찰전문이박사 원주이전
- 원주시 단계동 상가로 이전
- 스님.보살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 지나가실 때 방문해주세요.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10-7347-1010(직통:이박사)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원주이박사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5
- 대지 : 740평
- 건물 : 법당 12평, 요사채 50평, 무학대사 자연동굴 약70평 (무속인 기도처)
- 불교용품 판매 가능
- 보증금 : 3천에 월세30만원 전세 가능합니다

010-2078-9595

##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사거리 지하철 근접
- 4층 건물 중 2층 34평
- 총무실1.침실. 화장실2.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 5년째 법당으로 사용하다 현재 비어있음

010-8448-6725

## 광진사찰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 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대지 : 350평
- 법당 30평, 요사채 : 20평
- 가액 : 4억 5천만원
- 전철인접(도보 20분, 차량 +2~3분)
- 버스정류장(도보 1~2분)
- 주차10대이상, 텃밭, 뒷산
- 즉시법회 가능 공인중개사는 사절합니다. 사진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문자로 사진요청은 안보냄)

010-6559-0913

##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해남읍에서 5분 거리
- 대지 : 1,500평 남짓
- 시설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등 모두 방 10칸
- 외부 : 부속사, 대영주차장 등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 모두 합 2억 9,500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시청부근 자동차로 10분 거리
- 대지 : 200평, 100년 사찰, 주차시설완비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 20평
- 전세 : 2억

010-4561-6368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대지 : 220평
- 건물 : 대웅전(50평, 공양간, 종무소 포함), 요사채 2동
- 특이사항 : 법당 바로 법회가능 (불상, 불단, 냉방시설완비)
- 가액 : 9천 오백만원

전화 : 010-6241-8499

##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마산 근교
- 대지 1,000평 / 임야 4,000평 총 5,000평, 법당 37평, 요사 65평
- 천혜의 명당이며 지하암반 석수있고 수목장하기 좋은 위치임
- 마산근교 10분 거리 단독도로와 경관이 좋습니다
- 가액 : 11억원.대출 : 2억 5천만원

010-4547-4990

##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시 동구 범일동 만리산
- 대지: 90평~ 여분 30평
- 법당 2층 30평, 요사채 방 5개, 화장실(실내,실외), 산신 용왕당 있음, 마당, 화단 등등
- 가액 : 4억 5천만원

010-3580-5734

##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북구. 신협, 농협 중간. 아파트 밀집
- 상가건물(168㎡) 2층 단독건물(옥상포함)
- 법당: 삼존불, 지장, 신중, 소불200불
- 친견실, 편백황토방, 명상수련
- 현)법회중 ● {도량내}주차시설(영업)
- 보증금 2천, 시설비 4천8백(조정가능)

※ 집세는{無} 포교원 함께 운영하실 스님 연락바랍니다!

스님(직)010-4535-2568

##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지
- 법당 : 아미타불 외 (삼존불) 호신불(관음지장)-400위, 십대대왕
- 마당 : 삼층석탑, 포대화상, 관음석불
- 법회 즉시 가능함
- 도시가스 완비
- 급 양도 ● 가액 : 전화상담

010-3828-9898

##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대지 : 53평(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 연건평 : 123.38평
- 지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1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2층 : 30.8평(요사채)
- 3층 : 30.8평(밥당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여수 시내에 위치하여 포교원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 양도가:4억 ● 공시지가:3억 8천

010-3841-1748

##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 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평당 60만원(조절 불가)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동작구 사당 4동 4층 건물 중 2층. 27평
- 법당1, 방1, 실내 화장실1,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없음(호불탱화1, 신중탱화1, 산신탱화1)
- 가스보일러 설치
-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 5분 거리

010-9728-0788

## 사 찰 안 내
- 주소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금명사
- 법당, 산신각, 방2개, 욕실, 주방
- 월세 :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가능)

010-9370-7513
010-7626-7912

## 사찰터(대지)안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서종면
- 중앙 고속도로 IC 확정
- 친환경 황토 통나무 건물
- 대지 333평,실평수 400평,건평142평, 실평수 200평
- 팬션, 요양원, 사암, 임대업 적합
- 현재 보증금 3억3천,월1백70만원 수입
- 초특급 급매 13억(조절가능)

010-9237-8599

## 포교원 안내
- 부산시 금정구 서1동 미로시장 부근
- 평수 (약)45평, 방2개, 친견실1개, 주방
- 부처님, 삼존불, 칠성, 산신 및 지장보살
- (전)1천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월 25만원 ● 집기류 일체

011-874-1593

##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660평. 남향
- 요사체 포함 11동. 무건물
-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1000평.약수물.각종 유실수 다량
- 4륜구동 차량 진입가능. 주차장
- 가액 3억 5천

010-9203-1165

##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 구서동(지하철 3분)
- 새로 개금불사 및 법당 모두 수리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100평(산신각 포함)
- 시설비, 권리금 한푼도 없음
- 전세, 월세 조건 맞추어 드림

010-8916-5680
010-3574-3303

## 서울, 수도권 사찰
- 대지: 123평, 대웅전 목조단청
- 요사채: 80평부지 건물등재
- 종무소, 3층석탑, 향나무등
- 아름다운 전통사찰

010-5466-3321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2,500만원

010-5258-1570

##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 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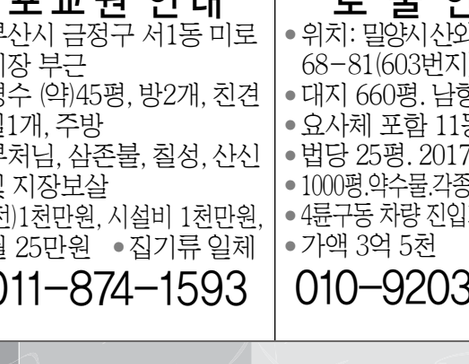
## 전망 좋은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바닷가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양도가 : 1억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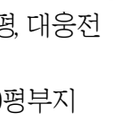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 “우리는 누구나 연민의 수혜자”

## 피난 온 소말리아 시민기자 돕는 美불자부부

박정현 객원기자

미국의 불자 부부가 미국으로 피난을 온 소말리아 시민기자를 도운 이야기가 화제다. 그 주인공은 샤론 맥도넬(Sharon McDonnell)과 깁 패리시(Gib Parrish) 부부. 이들은 압디 노어 이프틴(Abdi Nor Iftin)이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올 때 불교의 ‘연민’ 사상을 근거로 재정적 · 정서적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불교 언론 트리사이클(Tricycle)은 지난 9월 20일 샤론과 깁을 비롯해 압디를 도운 불자모임 ‘팀 압디’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소말리아인 압디의 회고록 내용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것은 미국인과 불자 모두에게 자명한 진리와 같다. 미국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불교는 그 영적 틀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불자인 미국인들이 압디를 도운 일에 대한 공통분모를 해석한 것.

보도에 따르면 압디는 ‘인간 기본권’을 찾기 위해 내전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모가디슈로부터 미국 북동쪽 메인(Maine)주(州)로 피난 왔다. 시민기자

**모가디슈 내전상황 보도하는**
**시민기자 압디 노어 이프틴**
**살해위협 등 받으며 美 피난**
**샤론 · 깁 부부가 지원 나서**

로 활동한 압디는 국가의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는 것에 대해 큰 위협을 느꼈다. 그 참혹한 탈출기 속에 부처님 인연으로 이들을 만났다.

샤론과 깁은 우연히 라디오 특집 프로를 통해 압디의 곤경에 대해 듣고 재정적 · 정서적 지원을 시작했다.



미국 불자들이 ‘팀 압디’를 꾸리고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소말리아인 압디 노어 이프틴에게 자비행을 베풀고 있다. 왼쪽부터 레오 호나크, 압디 노어 이프틴, 샤론 맥도넬.

사진출처=트리사이클

압디는 미국에 와 그들을 처음 만난 때를 회상하며 “불상이 마루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나는 누가 부처인지 모르지만 샤론과 그녀의 가족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미국인들이 불교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 가족을 보고 배웠다. 샤론과 깁,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실천하는 불교의 자비희사 사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연민은 불교 사상의 중심이지만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읽힌다. 실천 이상의 개념인 것. 샤론과 깁은 이 같은 ‘연민’을 압디에게 직접 실천한 것을 두고 “그가 처한 곤경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9년 우리는 버몬트 북부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강의 중이었습니다. 압디는 딕 고든과 함께 공영라디오 방송인 ‘the story’라는 프로그램에 익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어로 말하면서 서양 라디오에서 (소말리아 내전 상황 등을)발설하면 그는 살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압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샤론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디가 그 방송 이후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있었다.

샤론은 “소말리아 내에서 외국 언론사가 해산되고,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상황을 알았다”며 “나는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시민 저널리즘’을 홍보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론은 그 길로 라디오에 편지를 보내 압디를 비롯한 시민기자들을 돕고 싶다고 요청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연락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라디오 관계자들을 통해 압디가 답장을 전한 것이 이들 인연의 시작이다.

샤론은 “나는 그들에게 그저 돈을 보내는 ‘부유한 미국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제공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을 지켜보는 게 즐겁다”며 “실제로 많은 물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사실 샤론은 전적인 불교 신자는 아니다. 프로테스탄트의 한 교파인 퀘이커교도의 일원이다. 하지만 13살 때부터 명상가이자 열렬한 리더로서 불교에 대해 연구하며 불자가 됐다. 그는 스스로를 ‘퀘이커 불자’라고 부른다.

“세계적 불교 지도자인 페마 쵸드론과 잭 콘필드는 제게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과학적 관점보다는 경험적 관점에서 영성의 심각성에 대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연민이 옵니다. ‘팀 압디’는 시민기자들에게 자금을 보내고 그들을 끊임없이 도울 것입니다. 나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연민의 수혜자였을 것입니다.”

# 티베트 불교, 성 불평등 개선 ‘눈길’

## 최고학위 ‘게ᄀᆞ셰’ 받은 비구니 스님들 조명

지난 2016년, 티베트 불교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티베트 불교에서 불교학 박사 내지는 삼장법사를 뜻하는 최고학위인 ‘게ᄀᆞ셰’를 2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받은 것이다.

인도의 뉴스매체 ‘더 와이어’는 9월 25일 지난 8월 다시 열린 ‘게ᄀᆞ셰파(여성 게ᄀᆞ셰)’ 시험의 모습과 그 의의를 특별 보도했다.

게ᄀᆞ셰는 ‘선지식’이라는 뜻의 티베트어로, 12세기부터 티베트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위이다. 최소 17년 이상 교학을 수학해야만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총 4단계의 게ᄀᆞ셰 학위가 있다.

가장 높은 ‘게ᄀᆞ셰하람빠’ 학위의 경우 평생의 단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고, 엄격한 필기와 토론시험을 거쳐 합격이 결정된다. 하람빠 학위를 받게 되면 본산의 방장과 종정에 추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현 14대 달라이라마도 게ᄀᆞ셰하람빠 학위를 가지고 있다.



2012년 게ᄀᆞ셰파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최초의 게ᄀᆞ셰파들과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단 이 게ᄀᆞ셰지위는 지금까지 비구승에게만 주어졌다. 비구니 스님들은 아무리 오랜 기간 교학을 수학해도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가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며 직접 비구니 게ᄀᆞ셰인 ‘게ᄀᆞ셰파’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안, 티베트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한 끝에 최종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게ᄀᆞ셰파 제도 도입은 티베트 불교계 내에서 남녀출가자의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다. 10세기경 티베트에서 비구니 계맥이 끊긴 후, 여성출가자들은 수많은 불평등 속에 지내왔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구의 여성출가자들은 달라이라마에게 티베트 승단에 비구니 계맥을 복원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승단이 전해오는 근본설일체유부율의 비구니 계맥이 확실치 않아 당장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여성출가자들의 권익과 지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게ᄀᆞ셰파를 취득한 땐진 꾼쎌 스님은 “티베트에 살고 있는 내 여동생도 출가했지만 교학을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며 여성출가자들의 열악한 교육상황을 전했다. 실제 티베트 본토와 히말라야권의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은 채 불평등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1월 보드가야에서 열린 법회에서 “게ᄀᆞ셰는 티베트 고유의 전통이니 여성출가자들이 게ᄀᆞ셰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법석에 앉아있는 게ᄀᆞ셰들은 대중들로부터 마땅히 찬탄 받을 귀중한 분들”이라며 여성출가자들에 대한 교육체계의 확립과 게ᄀᆞ셰파 제도를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지난 8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다람살라 근교의 ‘잠양 쵤링 비구니 사원’에서 한 번 게ᄀᆞ셰파 시험이 진행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인도 각지의 강원에서 수학한 4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응시했고, 최종적으로 10명의 스님이 시험에 합격했다. 티베트 불교계의 남녀출가자 평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진 좌, 우는 베이징 윈쥐쓰에서 열린 불교음악회의 모습이다. 사진출처=TMO뉴스

# 中 천년고찰, 가을음악에 빠지다

## 제5회 베이징 윈쥐쓰 불교음악회 개최

중국불교계와 음악계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불교음악회가 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윈쥐쓰(雲居寺) 불교음악회가 지난 9월 22일 개최됐다고 중국의 ‘TOM 뉴스’가 전했다.

윈쥐쓰는 7세기 초 수나라 때 세워진 고찰로, 불교학계에선 팡산석경(房山石經)이라는 석각 대장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1981년 대장경이 모셔진 동굴에서 진신사리가 담긴 사리함이 발굴된 중국불교의 중요한 성지다.

윈쥐쓰 불교음악회 측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윈쥐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매년 가을경에 열리는 불교음악회는 불교를 모티브로 한 고전,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와 현대음악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추절 연휴(한국의 추석)에 맞춰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윈쥐쓰 경내에 가설된 특별무대에서 진행됐다. 총 3막으로 구성된 음악회는 1막에서 중국 전통음악, 2막에서 현대무용과 고전음악의 콜라보레이션, 3막에서 현대음악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연의 마지막은 출연자 전원과 윈쥐쓰의 스님들이 중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새롭게 전승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윈쥐쓰 측은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사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겠다”며 불교음악회를 매년 개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명상으로 얻는 緣起의 지혜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 4. 자비경선(慈悲鏡禪)

### 4) 관계성 통찰 사유

소나무에 기대 관계성 사유

진실을 아는 방법에는 직관과 추론이 있다. 직관은 눈앞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이라면 추론은 눈앞에 볼 수 없는 것을 사유로 추론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허공이나 무(無)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 즉, 추론 때문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진여, 공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유 분석을 통해서다. 그러나 지혜가 생기게 하는 추론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분법적 사고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기준으로 추론하는 것이어야 지혜가 생긴다.

지식은 그 사물에 한정된다. 다른 사물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혜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꿰뚫어볼 때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대입시킬 때 통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사회문제나 국가, 인류, 우주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지혜이다.

예를 들자면 죄나 잘못을 저지를 때 그 잘못을 없애기 위해 타작하여 곡식의 껍질을 벗기듯이 죄지은 자를 때려서 그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어린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고, 심하면 매로 때리기도 한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 죄가 없어질까? 지혜가 있으면 죄의 원인이 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앤다. 매를 맞는다고 훈계를 듣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그 지혜가 바로 죄를 없애는 것이다.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한 관계성 통찰사유 명상을 해보도록 한다.

① 소나무에 기대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는 펴준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10초~20초)

② 눈을 뜨고 눈앞에 있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연기의 상호의존성에 대하여 사유한다. 즉, 눈앞의 소나무는 시각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보이고, 다른 것과 분리 독립되어 보이고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소나무는 흙(흙의 요소)이 없으면 살 수 없고(흙은 지구 구성요소 중 하나임을 이해하고 지구를 시각화하여 떠올린다), 물(물의 요소)이 없으면 살 수 없으며(하늘의 비 내림과 바다와 강을 떠올린다), 차고 따뜻한 온도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다(불의 요소).

또한 바람(바람의 요소)이 없으면 자랄 수 없으며, 공간(허공의 요소)이 없어도 자랄 수 없다(소나무 주위 공간에서 지구 주위의 공간으로 의식을 확장해본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우주로 공간을 확장한다).

③ 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속해 있다(태양계와 우주를 떠올린다). 소나무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소나무가 없으면 우주가 없고 우주가 없으면 소나무도 없다. 왜냐하면 소나무 등의 부분이 모여 우주를 이루고 우주라는 전체는 소나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부분과 전체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이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는 동등하고 평등하다.

④ 부분과 전체가 상호 의존하므로 소나무는 고정, 독립, 분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나무를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은 어떤가? 소나무와 다르지 않다. 부분과 전체가 평등하므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자아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남녀 불평등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 인간중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또한 생명 중심에서 벗어나 무생물까지 상호 의존함을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한 하나임을 사유하여 바르게 안다(지혜).

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소나무를 시각화하여 우주까지 상호의존성을 사유 통찰한다. 그리고 소나무가 아닌 소리나 다른 것으로도 상호의존성을 사유 통찰할 수 있다.

끝으로 소나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고맙다고 한다. 땅에 대해서도 발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공기에 대해서도 공간에 대해서도 햇빛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표현한다.

지혜의 뜻

소나무를 의지하며 관계성 사유통찰을 통하여

**상호의존 이해하는 통찰명상**
**언어로 인식대상 구분 않고**
**사유 통해 존재 의미 깨달아**
**결국 실체 없다는 공성 이해**

어렵지 않게 지혜가 생기고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지혜에 대하여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상호의존의 통찰사유를 해야 하는가? 언어에 의하여 대상이 고정, 독립, 분리,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무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언어는 인식의 수단일 뿐 인식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를 인식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무지가 일어난다.

무지는 감정이 아니므로 강하게 마음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자각하기 어렵다. 탐욕이 생길 때는 그 대상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고정, 독립되어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분노의 대상은 고정, 독립된 존재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탐욕과 분노라는 감정은 모두 무지를 의지하여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언어를 매개로 사물을 인식하는데 이때 언어는 그 대상을 왜곡시킨다. 눈으로 사물을 볼 때도 이미 우리의 인식이 언어에 의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상을 원인과 조건으로 분석 사유해야 한다. 사유 분석을 통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상하게 변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하는 것이 비어있음을 알 때 그 앎을 지혜(언어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인식)라고 한다.

지혜는 첫째, 모든 것을 꿰뚫어 하나로 보는 것이다. 둘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이 지혜는 불변이다. 셋째, 무지가 사라지고, 무지가 사라지니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니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 괴로움이 사라진다. 몸과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대자유를 얻는다. 넷째, 부분과 전체가 의존관계이고 상호의존은 모든 것이 평등함을 아는 것이다. 평등하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있는 자는 성차별, 계층 간의 차별,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 전쟁, 그리고 환경오염 등 모두 탐진치로 인하여 일어나는 차별현상 등 이러한 문제를 지혜가 해결할 것이다. 다섯째,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여섯째,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체험 현상과 효과 생각하기

모든 것이 연기법 하나로 통합되면서 일체감을 느낀다. 지혜로 인해 안목이 생기고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까지 넓고 깊게 볼 수 있다.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면서 매우 자유롭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일어난다. 즉, 무분별의 깨어있는 의식상태를 체감한다.

상호의존의 지혜에 의해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의 지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지혜,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의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자아중심, 남녀중심, 인간중심, 생명중심에서 벗어난다. 상위수준의 의식상태를 체감한다.

걷기선 명상의 기본 네 가지 첫째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둘째 소리 무상 관찰하기, 셋째 몸과 마음 휴식하기, 넷째 소나무에 기대어 관계성 통찰 사유하기는 명상환경에 따라 순서를 바꾸면서 걷기선(禪) 명상을 한다. 그런데 걷기선 명상(자비경선)에는 열두 가지 명상이 있다.

①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② 소나무에 기대어 온몸의 감각 알아차리기-좌경선 ③ 걸으면서 무상관찰하기 ④ 청각의식 확장하기 ⑤ 시각의식 확장하기와 청각의식과 시각의식 확장 통합하기 ⑥ 연못에서 완전 거울이 되어 모든 존재와 연기적 일체감 체득하기 ⑦ 소리 무상 관찰하여 무주(無住)에 머물기 ⑧ 걸어가면서 무상으로 흘리기 ⑨ 마음 멈추고 쉬기 ⑩ 소나무에 기대어 의식 확장하기와 관계성 통찰 사유하기 ⑪ 안과 밖의 경계선이 없는 의식의 한 공간 이루기 ⑫ 미소를 짓고 자연과 사람 모두 소통하기이다.

### 5) 수미산 성지순례 걷기선 명상

티베트 카일라스산은 수미산으로 알려져 있다. 7월 초에 13명이 수미산 성지순례를 갔다. 걷기선 명상 지도자과정에 있는 수행자들 가운데 능인행님의 걷기선 명상일기의 일부다.

**순례대중과 걷기선 명상방법을 듣고 다리풀기 운동을 한 뒤 발끝 손끝 정수리에 의식을 두고 몸과 한 공간 이루면서 걷기를 시작한다. 수미산을 향하여 평소보다 늦게 출발하였다. 여러 번 순간 어지러웠다. 전조증세를 알아차림 못하고 계속 놓쳤는데 다르첸에서 숙소인 밀레르빠 수행처까지 오도록 그런 증세는 없었다.**

**여기 와서 계속해서 스님 멘트에 따라 수행한 탓인지 수행이 더 잘 되고 진전이 있다. 이제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전체보기로 전환한다. 전체보기가 선명하게 잘 되고 앞의 시야가 정확하니 걷는데 걸림이 없다. 스님께서 의식 확장이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의식 확장이 잘 되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지 않아도 좌우가 한눈에 들어온다. 스틱을 잡은 손가락 모양이 흐트러지지도 않는다. 수많은 형상들이 각각의 모습을 보이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모양도 모습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의미를 두지 않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인다.**

**걷는 도중 돌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발 앞으로 작은 수박 크기의 돌이 굴러 지나갔다. 멀리서부터 들려도 같은 소리도 없고 속도도 다르고 소리의 흔적도 없으며 스스로 구르는 것도 아니며 주변의 조건에 따라 다름을 알아차림 했다. 돌이 굴러야 할 조건이 되었고 상호관계성에 의해서 큰 돌과 작은 돌이 함께 굴러도 반응은 다르게 들렸다.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전체의식이 되지 않고 알아차림이 없이 그냥 걸었다면 다쳤을지도 모른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대행 스님



# 어떤 종교라도 불교 안에 있지 바깥에 있는것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발판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대불교신문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서, 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에 나가든 사업을 하든, 모두 인연 닿는 대로 구독을 하게끔 여러분이 권유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행회장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징검다리를 놔 주지 못합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보살행을 하게 하면서, 이 한국의 불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신계의 발전을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력을 하는 컴퓨터를 쓰지만 앞으로는 입력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의해서 그대로 컴퓨터를 쓰게끔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내 마음의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 불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발전하는 시대를 뒤따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실천궁행을 수범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지, 공(空)에 빠지거나 물질에 허덕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자재할 수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둘 아니게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스스로 그 빛을 발하라 하신 것입니다. 만물만생이 다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합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듯이 그것이 바로 교(敎)입니다. 또는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불(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불교 안에 있지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한 마음으로서 한바다에 들어서, 그 바다 가운데서 불뚝 솟아서 만물만생을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먹여 줄 수 있고, 먹여 주고도 되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부는 이 공부밖엔 없습니다.

또 신행 회장님들이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견지동(한마음 불교회관)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내고 거둬서…, 지금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알게 보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게끔 보시하는 것도 더러 있지만, 장학금이라든가 많은 보시들을 지금 우리 선원에서는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가 죽을 테니까 말입니다. 뭐든지 공개하고 주게 된다면 나부터라도 창피하고 괴롭게 생각되고 모자라고 어리석다고, 자기가 자기 원망을 무수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이 모르게, 공개하지 않고 이끌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릅니다만 일체 한마음은, 일체제불의 마음은 아마도 다 잘 알고 '허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구나! 참 착하다. 착하니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시대가 변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뜻으로 본다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자기를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공개했다가 만약에 잘못 받아들여지면 정말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행위를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건 스스로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뿌리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그렇게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러니까 회의를 갖더라도 견지동 장소를 찾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데서 나오고 저런 데서 나오는 것들,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서 가져오시는 돈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업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말하면 쓰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실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덩어리를, 고(苦)의 덩어리를 갖다가 준 것을 만약에 함부로 아무 데나 쓴다면, 그쪽 고덩어리도 제거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고를 면치 못할 겁니다. 고를 안 당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리, 이치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돈이 고덩어리로 보이고 돌로 보이고 그래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좀 더 생각한다면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는다면, 발 편안히 공부할 수 있고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참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언제까지나 사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찰나에 옷을 벗으면 금방 그냥 오간지옥에서 데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에 자기 살던 차원에 따라서 그냥 모습을 쓰고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두려운 거보다도 나 하나면 족하지만 나 하나뿐이 아니라, 내 배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그 모든 씨앗이 전부 그 뿌리를 좇아서 악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또 바깥으로 배출해 낸, 즉 말하자면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들어가면 그 구덩이에 역시 또 좇아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서 부처님의 법이 에누리가 없다는 사실과 우리들의 법과 부처님의 법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시면서 증명해야 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 느껴야 하고, 스스로 감지해야 하고, 감응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형제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론 겸 서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되, 알더라도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나 하나가 나 하나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더불어 하나기 때문에 보는 것도 더불어 보는 거고, 듣는 것도 더불어 듣는 거고, 가고 오는 것도 더불어 가고 오는 것이고, 움죽거리는 거 하나하나, 마음 내는 거 하나하나가 더불어 같이 마음을 내는 거기 때문에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가 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 가운데에 바로 참너가 허공에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처님의 뜻이고 이에 순응하되, 우리는 시대를 또 무시 못 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마음의 종지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부터 알고, 내 마음부터 찾아야 하고,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깨닫기 이전에,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라는 그 자체…, 저 나무뿌리를 보세요. 만날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듯이 나무뿌리에 의해서만이 싹이 살고, 나무뿌리가 싱싱해야 바로 나무 싹이 싱싱해서 거기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의 말씀처럼 제 나무가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는 제 나무를 서로 위하면서 상응하고, 정맥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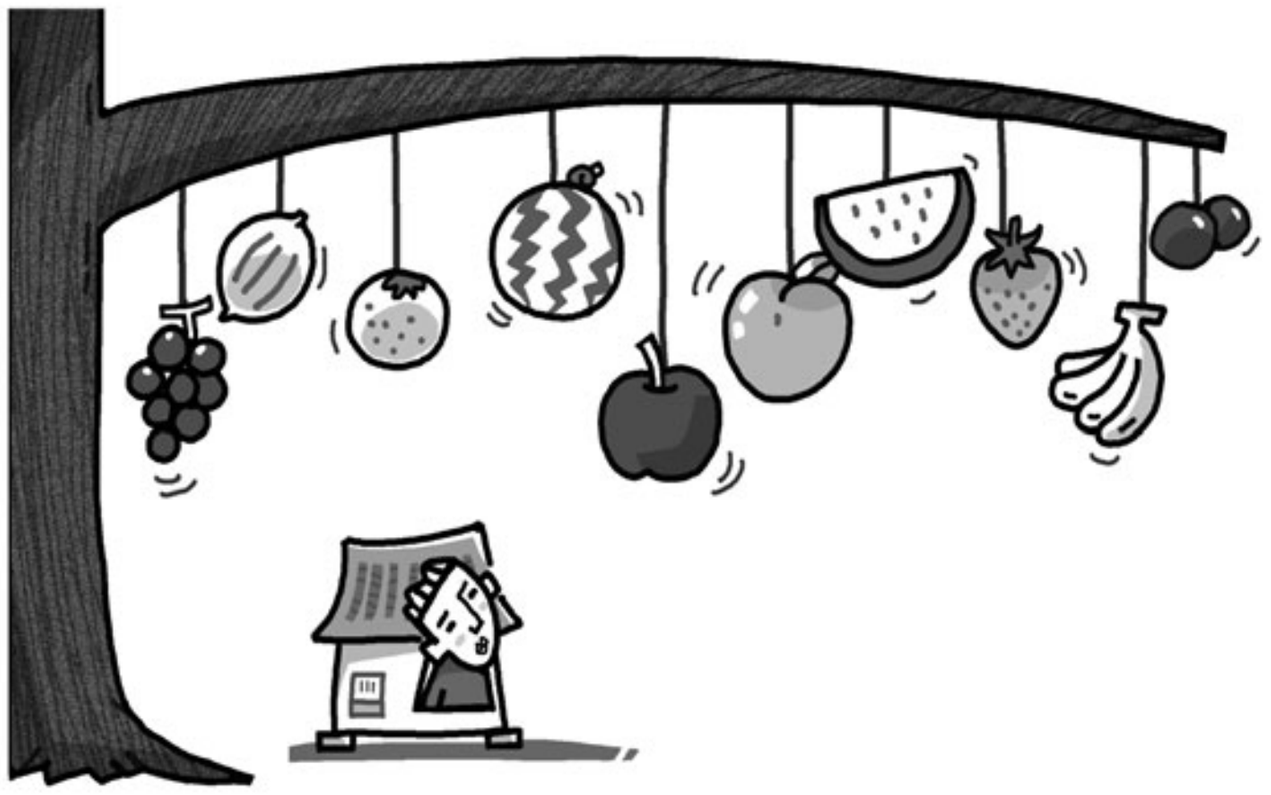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9주년 개산대재

만등불사 · 프라이드경북음악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9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을 이어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2(2018)년 10월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20일(토요일 음9.12)

오전 9시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개산법요식
오후 2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프라이드경북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도·시민이 함께하는 프라이드경북음악회

· 일시 :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출연 : 금잔디, 윙크, 현숙, 한혜진, 강민, 박영진 명창, 규리, 반전된 회상배.

■ 동대구역 지하도 (오전 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 (오전 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 (오전 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본·말사



# 진짜로 믿고, 죽고 사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하세요!

☞ A17면에서 계속

동맥이 서로 돌아가듯 함으로써 일체 만물만생에게 만 가지 맛을 보여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문 구독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불교신문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계의 계발을 시키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 사찰의 어떠한 비리를 파헤쳐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정신계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아주 평등한 법으로써 불교를 숭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도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허허허…,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으로써 생산력이 아주 화산처럼 터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흉이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를 회의하는 장소로 쓰고, 아끼지 말고 전부 구독을 시켜서 그 구독자로 하여금 이익이 갈 수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합장하시며) 한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들 하십시오. 적어서 가지고 오지 마시구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자1(남)**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20년 전 사구체신증후군이라는 종합병원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방과 양약으로 치료한 결과 지금 양쪽 콩팥이 다 망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피를 거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까지 나빠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제가 좋은 말씀을 대리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처님의 뜻으로서 둘 아니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예를 들어서 나무 싹이 딴 싹과 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내 뿌리에 에너지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지금 내 몸뚱이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 그게 업식입니다.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 업식입니다. 이것이 왜 업식이냐고 한다면 앞서 다 설법을 해 드렸으니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업식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듯이 차례차례로 나옵니다, 그게.

그런 거니까 단지 자기 참주인공의 선장밖에는 그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이 다스려야지 말이 다스릴 수가 없고 이론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주인공 그 자체 뿌리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네 시자인 육신을 다 깨끗이 청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맡기십시오. 진실히 맡겨야 거기에서 통신이 돼서, 대뇌로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면 작용을 해 줍니다. 거기서 작용을 안 해 준다면 아무리 병원에 가서 100% 낫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힘듭니다. 내 속에서 내 생명체들이 작용을 안 해 준다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나를 이끌어 가는 영원한 나의 주인공, 너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나를 낫게 할 수 있고, 나의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애당초에 피를 거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거르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거르다가, 이 주일에 한 번씩 거르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그건 본인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게 딴 사람이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사대 성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부터 돌아다보아야 주인이 있어서 네 집을 지킬 수 있느니라.' 하고요. 집이 비었으면 영계가 천차만별로 드나들어! 그래서 내 집이 망가지고, 내 일이 망쳐지고, 내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런 거지만 내 집에 주인이 있다면 감히 어디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 과학" 하지만, 그 과학을 깨뜨려야 진짜 과학이 나옵니다. 고정되게 못을 박아서 개념화하는 과학을 해체시켜야만이 진짜 과학이, 천차만별의 과학이 터지게 됩니다. 이 진짜 과학적인 것, 심성의학이라든가 심성과학 또는 심성천체물리학, 심성천문학, 심성공학, 심성철학 등 모두가 다 한 군데서 배출됩니다. 움죽거리지 않고 에너지를 배출시키기만 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모든 분야가 배출됩니다. 배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연구해서 다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지 누가 고칩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이 망가진다면 주인이 고쳐야지, 딴 사람이 와서 고쳐 줍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야 하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하고, 제 뿌리는 제 싹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상례로 돼 있죠. 나무뿌리는 수분과 지분, 철분을 위로 공급하고, 위에서는 태양력과 공기력을 또 흡수시켜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응하면서 푸르르게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애탄지탄하시지 말고, 죽는다 산다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다!' 하고 탁 맡기시지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옷을 입었다가 벗어 놓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바로 대우가 정해지죠, 차원이 정해지고.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모습을 가진 생명들이라면 그 대접밖에는 못 해 주는 것이지 인간 대접을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차원도 스스로 기르는 거고,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해 주고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죽고 사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자2(남)** 큰스님, 이렇게 친견하게 돼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천만 불자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자는 참선을 통해서, 또 혹자는 염불을 통해서, 또 혹자는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절에 갔을 때는 어느 스님께서 17년 동안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 한마음선원에서는 모두 이 한마음의 주인공에 일체를 맡기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이천만 불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큰스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큰스님** 예, 행주좌와 관법(行住坐臥觀法)으로! 허허허…. 우리가 말입니다,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행주좌와 관법이냐 하면 자기의 관법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안 그래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모두가 벌어지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하는데, 자기의 생산된 이 육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화두를 잡아서 해도 돌아갔지만, 그게 먹혀들어 갔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겉돌아서요. 왜 겉도느냐? 세계를 안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죽거리는 모든 걸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데다가 핑핑핑핑 돌아가는 그 머리 때문입니다. 육체가 탄생한 것도 화두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도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관법을 또 받아 가지고 하니까 겉돌 수밖에요. 행주좌와 관법은 시대가 요하는 겁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시대를 순응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뒤를 쫓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란 거지. 불을 밝혀서 앞장서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행주좌와 관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허허허….

지금 쉬지 않고 지구가 돌아가는가 하면 우주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데다가 내 이 육체 속의 자생중생들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육체가 쉬면서 돌아갑니까? 이거 보세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눈을 뜬 것도 뜬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것이 어느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랬으니 공했지. 내가 한 게 따로 없으니 물 한 컵을 마셔도, 아니, 더불어 같이 마신 거기 때문에 공식(共食)이지. 보세요. 공생(共生)·공심(共心)·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봤을 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여래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래가 아니에요. 개별적인 하나가 깨달으면 전체가 다 들려야만이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 수만 명이다 할지라도 깨달은 그 한 마음 처에 같이하기 때문에 여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배울 때 잘 배워야지, 예를 들어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삐뚤게 앉아서 해도 괜찮지. 요다음에 배워서 잘하지.' 이럭하면 안 됩니다. 앉음앉음이가 굳어져서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인간도 마음의 오계(五戒)에, 오계향(五戒香)에 첫째, 내 마음으로부터 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선이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서 비비는 거지 언덕이 없다면 비빌 수가 없고 소가 없다면 비벼지지도 않죠. 그와 같이 인간도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 놔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에서 관한다 하는 것은 쉴 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관하는 거지, 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관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든 일배를 올리든, 내가 부처님 앞에 한마음으로 넣고 일배를 올려도 올리고, 일어날 때는 한마음으로 나와 같이 하고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리로 가도 하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이 진리를 파악할 수도 없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스간에 몽땅 타고 앉아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소리죠.

**질문자2(남)**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또 하실 게 있어요? 허허허….

**질문자2(남)**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우리 불자들이 큰스님 친견이 있어 새벽부터 왔습니다. 또 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전방과 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건 못 오건, 우리 모든 군인들에게 한마음 크게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그럽시다. 허허허…. 부처님의 마음은 저 좁쌀 알갱이만 한데다가 넣어서 천리든 만 리든 가깝고 먼 것도 없이, 빛보다 더 빨리 추진한다면 거기서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만 개도 되고 천 개도 되고 헤아릴 수 없이 허공을 뒤덮을 수도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광대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법을 꼭 배우시도록 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

**시대를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마음의 종지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부터 알고, 내 마음부터 찾아야 하고, 내 마음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10월 2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6회
묘엄불교문화상 공모

고(故) 세주 묘엄 스님의 뜻을 기리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 공모기간 : 2018년 10월 1일 ~ 31일까지
■ 시상내역 : 2명 (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문화, 불교실천, 불교학술 등의 분야로 나누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어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85-1 선경아파트 8동 1309호 조성래 앞
□ 문 의 : 팩스 051) 517-7101 / 사무국장 010-9317-9199 david1080@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8년 12월 13일 세주 묘엄 스님 추모 다례제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SAMSUNG PHARM 삼성제약 GMP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삼성 MSM 100 건강기능식품
계단만 보면 뛰어 올라가고 싶다...
관절-연골
유기황 MSM 이란?
MSM은 연골, 인대, 연결조직 등을 구성하는 물질로 식약처로 부터 기능성, 안전성을 인정받은 소재입니다.
전화주시면 30정 1통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노화로 관절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
⊙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분
⊙ 무릎, 허리가 불편하신 분
⊙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
⊙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 과체중으로 관절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이 필요하신분
30정 1통 무료

용량 : 500mg×30정
※택배비 2,500원 본인부담
유기황 MSM 30정 1통 무료신청 ☎ 02-995-2700

| 현불 논단 |

# 음주문화 개선 필요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주취폭력 등 사회문제 대두돼도**
**음주에 한없이 관대한 한국사회**

**이젠 '음주 라이딩' 까지 만연해**
**처벌 · 단속 시작했지만 벌금 수준**
**음주문화 바꿔야 현 문제 해결**

**음주 인해 다른 죄 지을 수 있어**
**장소와 때에 따라 자기 절제해야**

실로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 이다. 우리 사회가 음주공화국이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1920년대부터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술 마시기를 매우 좋아하며, 타인의 음주행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고 여기저기에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음주행태를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한다. 즉, 음주가 하나의 의식체계라는 것이다. 우리처럼 집합주의가 지배적인 생활문화에서는 술자리에서도 개인의 입장은 무시되기 십상인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여 술을 즐기기보다는 공동체 규합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겐 아직도 노동과 여가가 제대로 나눠지지 못하여 노동이 여가요, 여가도 노동인 경우가 많은데 그 간극을 술이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마도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음주의 사회적 의미가 남다를 정도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였지만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질환으로 소모되는 의료비는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물론이고, 심지어 음주상태에서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경찰기관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 즉 주취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을 우리만큼 강력하게 단속하는 나라도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그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음주 자전거 운전, 즉 음주 라이딩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서글픈 소식이다. 최근 들어 자전거 동호인이 크게 늘면서 음주 라이딩도 그만큼 만연해졌다고 한다. 자전거가 보호 장비를 아무리 갖추어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시 외부충격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음주 라이딩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물론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닌 범칙금만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처벌규정이 음주 라이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해 음주 라이딩의 동기를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벌이 미약하고, 단속도 쉽지 않아서 경미한 처벌마저도 불확실하다면 다른 방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길일 것이다.

술 자체가 사회의 악이고 원천적으로 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부터 우리 불가에서도 술을 술이라고 하지 않고 '곡차' 라고 했다. 고승들의 일화에도 '곡차' 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자체만으로 계를 어겼다(犯戒)고 보지 않는 의식이 저변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음주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다른 죄를 지을 우려가 있어 금지하는 차계(遮戒)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오계 중에서 '불음주' 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않겠습니다' 로 수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술을 마신 후 허튼 짓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면서 마실 수 있는가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술은 때와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음주' 와 '불음주' 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社說

# '50돌' 전국비구니회에 거는 기대

비구니들의 권익향상과 교육 · 수행 · 포교 · 복지 등 다방면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8년 전신인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 로 출발해 반백년의 역사를 쌓았다.

전국비구니회는 긴 세월 동안 '도덕을 높이고 신의를 밝혀 사회의 꾀함을 위함' 이라는 기치와 △총림의 건립 △포교의 합리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3대 강령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비구니들의 대사회적 활동무대를 확대하고, 종단 내 종무행정과 입법활동분야서 톡톡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구심점이 됐다.

이제 전국비구니회는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준비할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비구니 의료서비스 확대와 노스님 수행거처 마련이다. 앞서 비구니회는 조계종 승려복지회, 동국대 일산병원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비구니스님들의 건강검진 등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암 진단을 받고, 진료를 통해 병마를 이겨낸 스님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대중에게 보급되지 않았다.

또한 노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수행거처가 전국비구니회 차원이 아닌 개별적으로 지어지거나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주지 소임을 마치거나 나이가 들면 비구스님에 비해 갈 곳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어느 비구니스님의 호소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다. 부디 전국비구니회가 반백년의 역사를 반추하고, 비구니 승려복지에 앞장서는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사찰 축제 '자비실천' 확대를

가을은 국화의 시즌이다. 사찰에서는 국화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사찰 초입에만 가면 향긋한 국화향기가 퍼져 나온다.

국화축제가 열리는 사찰에서는 또 다른 향기도 퍼져 나온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행사다. 판로가 막힌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부터, 실업자 상담과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일자리 소개마당, 농촌의 작은 학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까지 사찰과 농촌,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조계사는 여기에 더해 아예 봉사단을 발족한다. 가가호호 다니며 집수리부터 생필품 전달까지 국화축제를 맞아 본격적인 자비행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사찰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사음악회부터 문화재 전시전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사찰 행사가 더 큰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조계사의 사례와 같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실천이 늘어나야 한다.

단순한 행사도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로 바뀔 수 있다.

사찰은 예로부터 빈민구제, 구호의 중심이었다. 어려울 때 사하촌 사람들은 사찰에 의지해 헤쳐나갔고, 사찰 또한 어려울 때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었다.

다시 사찰과 농촌(寺農)공동체의 전통을 살리고 여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더할 때 불교의 위상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이제 진정한 자비의 꽃을 사찰에서 피우자.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 보물 제 2000호 지정에 부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지정이 제2000호에 이르렀다. 조선시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에 그린 8폭 병풍 중 한폭인 '삼공불환도' 가 보물 제2000호의 주인공이 됐다. 불교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물 지정 제2000호는 축하할만 한 일이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을 중심으로 지정하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이 지정됐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보 제228호),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해 기지정문화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하여 지정했다.

기실 국보와 보물에서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2017년 문화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보 중 176건이, 보물 중 1266건이 불교문화재였다. 국보와 보물 중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예산 사용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기획실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해 발간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및 예산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2800억 원이며, 그 중 국유와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은 741억 원이다.

반면 일반회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운영비용으로 1000억 원이며, 이 중 궁 · 능, 유적 관리소에 배정된 예산은 610억 원이다. 사실 불교문화재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문화재보호기금 상당 부분이 국가기관 운영, 시설 건립, 국유문화재 관리에 사용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문화재 전체 전승과 유지 · 보수에 44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장 많아 보이지만, 국가 소유 궁능 유적관리에만 772억 원이 별도 배정돼 있다. 내년 주요 사업 계획도 광화문 월대 복원, 인천공항 궁중활용프로그램, 궁중문화축전 등 대부분이 국가 소유 문화재 관리 · 활용에 집중됐다.

국가 지정문화재 중 절반 이상은 조계종 등 개인 · 단체가 소유한 사유 문화재들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 보전 · 활용하는 예산 비중은 그렇지 못하다.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국보와 보물로 지정했다면 이에 맞는 예산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사부대중일동
부설 이리불교대학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 063)854-1578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 (청계로 475)
• 전화 031)426-2348, 2221
• 전송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Tel 02)927-0588 / Fax 02)927-5390




2018년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세계 속의 문화유산 통도사 1373주년

# 개산대재

## 영축문화축제

시방세계 • 부처님 • 통도사에 • 나투시다

## 9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천년도량 영축산의 하늘이 드높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통도사에서는
개산1373년을 맞아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재와 함께 여러분들을 축제의 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통도사 개산대재 일정 안내




청소년댄스경연대회 10월 13일 1PM



괘불이운 10월 14일 9AM



괘불헌공 10월 14일 10:30AM



영고재 10월 17일 10AM



개산대재 법요식 10월 17일 11AM



부도헌다례 10월 17일 2PM

**개막식**

| 일자 | 시간 | 장소 | 주요내용 |
|---|---|---|---|
| 9월 22일 | 오전 10시 30분 | 하로전 | 부처님과 어린왕자(이영섭 작가)<br>나도 작가다 |

**공연**

| 일자 | 시간 | 장소 | 주요내용 |
|---|---|---|---|
| 9월 22일 ~ 26일 | 오후 1시~3시 (매일공연) | 야외공연장 (일주문 옆) | 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피버밴드, 통기타, 색소폰 등) |
| 10월 13일 | 오후 1시 | 설선당 잔디밭 |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
| 10월 14일 | 오전 11시 | | 만발공양 / 문화공연 |

**전시**

| 일자 | 시간 | 장소 | 주요내용 |
|---|---|---|---|
| 9월 22일 ~ 10월 28일 | | 보행로(일원) | 괘불대전 |
| | | 불이문 | 괘불조성체험(비즈관세음보살) |
| | | 박물관 앞길 | 양산의 거리 |
| | | 도량 일대 | 국화장엄 |
| | | 하로전 일대 | 부처님과 어린왕자 전시(이영섭 작가) |
| | | 감로당 앞막이 | 나도 작가다 |
| 10월 9일 | | 박물관 | 괘불탱 특별전 |

**법요**

| 일자 | 시간 | 장소 | 주요내용 |
|---|---|---|---|
| 10월 14일 | 오전 9시 | 산문주차장 | 영축삼보 이운 |
| | 오전 10시 30분 | 괘불대 앞 | 괘불헌공 |
| 10월 17일 | 오전 10시 | 해장보각(세존비각 옆) | 영고재 |
| | **오전 11시** | **설법전** | **개산대재 법요식** |
| | 오후 2시 | 부도전 | 부도 헌다례 |

※ 날씨에 따라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는 한국 3대 사찰의 하나로,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의 전통 산사(山寺)"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있어 불보(佛寶)사찰이라고도 합니다. 사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절이 위치한 산의 모습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인도 영취산의 모습과 통하므로 통도사라 이름했고(此山之形通於印度靈鷲山形), 또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 계단(戒壇)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했으며(爲僧者通而度之), 모든 진리를 회통(會通)하여 일체중생을 제도(濟道)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이름지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Tel 055-382-7182 / Fax 055-382-7196
www.tongdosa.or.kr

# 지역민의 '休' 같은 '쉼터' 복지관장



은사 스님의 치매를 돌보며 '사회복지'에 눈뜨게 된 일광 스님은 2008년 '거창 삶의 쉼터' 개관 때 인연을 맺고 2014년부터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 그대는 자비보살 일광 스님(거창 삶의 쉼터 관장)

### 사회복지에 눈 뜨다

**"사회복지 생각해 본 적 없어"**

**치매 온 은사 돌보며 '복지' 눈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함께 해야"**

**동국대 대학원서 사회복지학 공부**

거창=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좌절했는데 스님이 있어 위로가 되어 자신감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인간에게 인간의 존재가 점점 가벼워지기만 하는 세태 속에서 '위로'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일 것이다. 지역의 중학생에서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그들의 따뜻한 '위로'가 되어 불법을 실천하는 이가 있다. 경남 거창 삶의 쉼터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의 쉼터가 되어 살아가는 일광 스님이다. 스님은 남자 중학생을 '남자친구'라고 부르고, 동네 어르신들은 슬그머니 다가와 자연스럽게 스님의 팔짱을 낀다. 마흔의 중년 남자는 관장실문을 자기 집 대문처럼 열고 들어와 손수 구운 와플을 건네고 수다도 떤다. 스님이 따뜻하게, 그리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다.

#### 스님의 남자친구(?)

지난 7월, 〈스님의 남자친구〉라는 엉뚱한(?)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일광 스님의 산문집으로, 스님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만난 인연들과의 사연을 담고 있다.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책 〈스님의 남자친구〉에 등장하는 남자친구는 중학생이다. 스님께 상담을 신청했던 동네 아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아이는 스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스님은 귀를 기울여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풀어 놓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풀렸는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이미 답을 알고 있더군요. 저는 그저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 준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잠시 앉아 쉬면 다시 시작할 힘을 얻듯, 스님은 누군가의 나무 그늘이 되어주고 있었다. 스님은 '쉼터'였다. 모두에게 언급한 위로의 이야기는 그 중학생이 책 속에서 한 이야기다.

그 중학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스님이 너무 좋아서 포행 길에 마주 치면 손을 휘휘 흔들며 큰 목소리로 스님을 불렀다. 포행 길에 동행한 일광 스님의 도반 스님이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의 모습에 놀랐는지 일광 스님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스님은 "남자친구"라고 답했다. 그건 상담 후 아이가 먼저 여자 친구가 되어 달라는 다소 당돌하고 귀여운 부탁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스님이 출간한 책의 제목이 되었다.

책 안에는 동진 씨, 서울 택시 기사님, 요양원 철순이 등 우리도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인연들이 등장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기, 윷놀이, 카네이션 등 평범한 사물이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스님은 책 머리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물을 대하면서 건네는 저의 눈빛과 손길을 마음이라는 접시에 담았다"고 했다. '수행자의 소박한 밥상' 같은 글이라 소개하는 스님의 머리말에서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읽힌다. '작은 인연'이란 단어는 우리가 소소하고 평범하게 만나는 인연을 소홀히 생각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네 삶을 결정하는 소중한 인연은 바로 '작은 인연'이다. 작은 인연을 인드라망처럼 여기고 더 없이 소중한 인연으로 바라보는 수행자, 일광 스님의 안목이 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 거창의 사랑방 '삶의 쉼터'

일광 스님은 하루 대부분을 '삶의 쉼터' 복지관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삶의 쉼터'에는 하루 평균 400여 명이 방문한다. 어르신들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다.

'삶의 쉼터'는 우선 지역 어르신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담당한다. 탁구, 당구, 노래 연습까지 건강을 위한 체력 단련 활동과 쉼터 실버대학을 열어 서예, 기타 연주 등 음악 활동으로 활력을 더해준다. 한문,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강좌도 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거창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며 해외에서 온 며느리와 소통을 시도해 가정불화를 해소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다채롭다.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 상담과 재활 및 교육도 담당한다. 사회적응을 위한 활동도 지지하고, 말 그대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삶의 쉼터는 전국 201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종합 A 등급을 받았다. 2008년 6월 복지관 개관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2014년, 2017년 두 차례 A 등급으로 선정 됐다. 아울러 2015년에는 전국 노인복지관 평가 최우수등급에 선정돼 전문복지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복지관 활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사회통합'이다. 일광 스님은 사회통합을 '공동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삶의 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체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장이 되고 있다.

2008년 거창 삶의 쉼터가 개관하면서 사무국장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 관장을 맡고 있는 일광 스님은 "사회통합은 함께 산다는 뜻이다"며 "바로 공동체를 뜻하며 그것은 가족을 의미 한다. 인식개선의 교육현장이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예로 스님은 점심 공양 시간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지적 장애인들 경우 겉모습만 보았을 땐 일반인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르신들 보다 먼저 장애인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식당 테이블이 한꺼번에 400여 명을 수용하기엔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어른이 먼저 식사하기 전에 젊은 사람들이 먹느냐고 언짢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모습에 얼굴을 찡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분들이 장애아들의 식사를 도와줍니다. 발작을 하고 식판을 엎는데도 웃으면서 합니다. 모두가 함께 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은 자식이 되는 것이죠."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고봉원묘(남송임제종 양기파선사)

B5
문화
송석곤 사진전 '탑에서 탑을 보다'

B6
학술 · 문화재
역사비평 조선 건국 다시보기 기획

# “출·재가 더 많이 ‘사회참여’ 해야”



2015년 8월 불교문화행사 죽림정사와 함께하는 ‘장애아동과 부모의 특별한 교감 명상캠프’ 진행 모습.



2018년 7월 삶의 쉼터 개관 10주년 기념식 ‘함께 걸어온 10년 ’ 행복한 삶 ‘을 꽃피우다’에서 우수 장애인 회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모습.

**일광 스님은?**

1993년 4월 해인사에서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 했으며, 1997년 10월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동국대 선학과 불교학과, 동국대 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동방문화대학원 대학원에서 명상심리상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거창 죽림정사 주지이며 거창군 삶의 쉼터 관장 및 거창 시니어 클럽 운영위원, 인사위원을 맡고 있다. 지혜로운 마음명상상담센터장으로 상담 활동을 이어 가고 있으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시설협의회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2016년 9월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한국지체장애인의 날 화합상 및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패를 받았다. 저서로는 〈아루나찰라를 걷다〉, 〈스님의 남자친구〉가 있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광 스님’** B1면에서 계속

‘삶의 쉼터’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민과 불자들의 나눔 복 밭도 되고 있다. 거창 불자들은 생일이나 49재를 지내면 회향할 때에 복지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밥을 지어 올린다. 지역 내 기업 및 상가에서도 급식 후원에 빠지지 않는다. 지역 곳곳에는 ‘거창군 삶의 쉼터 후원의 집’이란 현판도 보인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의 집이다. ‘108후원의 집’이라 불리는 정기 후원자가 현재 402호점(5월 기준)으로 늘어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거창 지역 전체가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노인들을 든든하게 후원하는 모습이다. 삶의 쉼터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줄 수 있었던 건 일광 스님의 굳건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작은 사례에서 공동체의 의식을 보여주는 스님의 신념을 읽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신념을 실천하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언젠가 복지관 직원이 첫 아이 때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 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둘째가 생겼다고 스님께 보고했다. 축하한다는 인사말 뒤로 스님은 순간 대체인력 채용, 업무 분장 등 여러 업무 관련 일이 떠올랐고 걱정이 앞섰다. 그 순간 직원은 “관장님 이 아이는 저 만의 아이가 아닌 세상의 아이입니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순간을 ‘일갈(一喝)이었다’고 소회했다. 스님은 “세상의 아이라는 말에 놓치고 있었던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부여받은 듯 감동이 일었다”며 “아이는 어머니에게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생각과 배려에서 태어난다”고 말했다. 스님의 공동체 의식은 복지관을 넘어 지역사회 그리고 일터까지 경계 없이 적용됐고, 그런 스님의 마음이 주변을 변화시켰으며 대중 모두는 지역사회를 서로 배려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복지로 살다**

**2008 ‘거창 삶의 쉼터’ 개관 인연**
**사무국장 거쳐 2014년 관장 부임**
**부침 겪는 중학생 등 대중 위로**
**상담 중학생 ‘남자친구’로 불러**
**산문집 〈스님의 남자친구〉 출간**
**2014, 2017 복지시설 평가 종합 A**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앞장**
**지역공동체 중심된 쉼터 이뤄**
**‘108후원의 집’ 402호 점 개설**

### 사회복지에 눈뜨다

일광 스님은 자신이 복지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주지로 살며 여느 스님들과 비슷한 행보를 걸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반 중에서 누군가 사회복지 방면의 일을 하면 잘 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전 인욕도 자비도 부족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따뜻함과 친근함이 장점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전 사회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광 스님은 은사인 혜선 스님을 시봉하면서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은사 스님은 80세를 넘기면서 치매가 왔고, 일광 스님은 10년 가까이 은사 곁을 지켰지만 스스로 부족했었다며 마음 아파했다. 단정하셨던 은사 스님의 변해가는 모습에 당황도 했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상황에 좌절감도 맛보았다.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건가 싶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의자를 보고도 합장하고 벽에 걸린 옷걸이를 보고 부처님이라며 절을 하셨죠. 치매가 오면 기억력도 안 좋아져 방금 공양을 드셨는데도 밥을 안 먹었다고 밥을 달라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노심이 올라왔다. 일광 스님은 옷걸이에 절을 하는 은사 스님을 향해 “화두를 잡으세요!”라고 소리쳤고 “정신 챙기세요!”라고 언성도 높여보았다. 혼자서 헤쳐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홀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고 돌파구는 없어보였다. 그 후 일광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그제 서야 ‘함께’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다. 사회복지학을 통해 은사 스님의 치매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 것도 큰 도움이었지만 의료복지체계를 알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혼자서 해결 할 수 없어 힘든 상황을 견디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손길에서도 행복을 느끼는데 스님들이 와서 손을 잡아 준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스님은 더 많은 불자와 스님들이 사회 속으로 나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인터뷰를 마치자 관장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 장소로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스님이 직업 훈련실에 들어가자 스님을 향해 장애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스님은 한 명 한 명씩 인사를 하며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한 자폐아는 스님의 목소리에 얼굴을 돌리고 저벅저벅 다가왔다. 그는 스스로 옷매무새를 고치지 못해 배와 함께 속옷이 나와 있고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하지만 눈은 스님의 미소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님은 손을 잡아주고 옷을 바로 입히며 몇 번이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인터뷰 가운데 스님에게 들은 자폐아가 기억났다. 그는 사회성 없는 자폐아 특징 그대로 스님을 만나면 말 한마디 없이 얼굴만 쳐다보았다. 하지만 정말 스님이 힘들고 지쳐있던 시기에 말문을 열었던 사람이다.

“스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쉬면서 하세요.”

10년 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던 그가 한 말이었다.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스님의 한숨과 답답함을 얼굴 표정만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 학진아! 스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정말 고마워.”

스님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학진이가 스님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졌던 그 순간, 스님은 답답함을 이겨내고 다시 뛰어갈 힘을 얻었다. 그들이 스님의 책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였다. 좋은 인연이었다. 서로를 위한 삶의 쉼터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조실 설악 무산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안양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조계종 원로의회 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
회주 현호
선원장

# 간화선 계승 고봉원묘…“최고 경지는 무심삼매”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⑱ 고봉원묘**(남송임제종 양기파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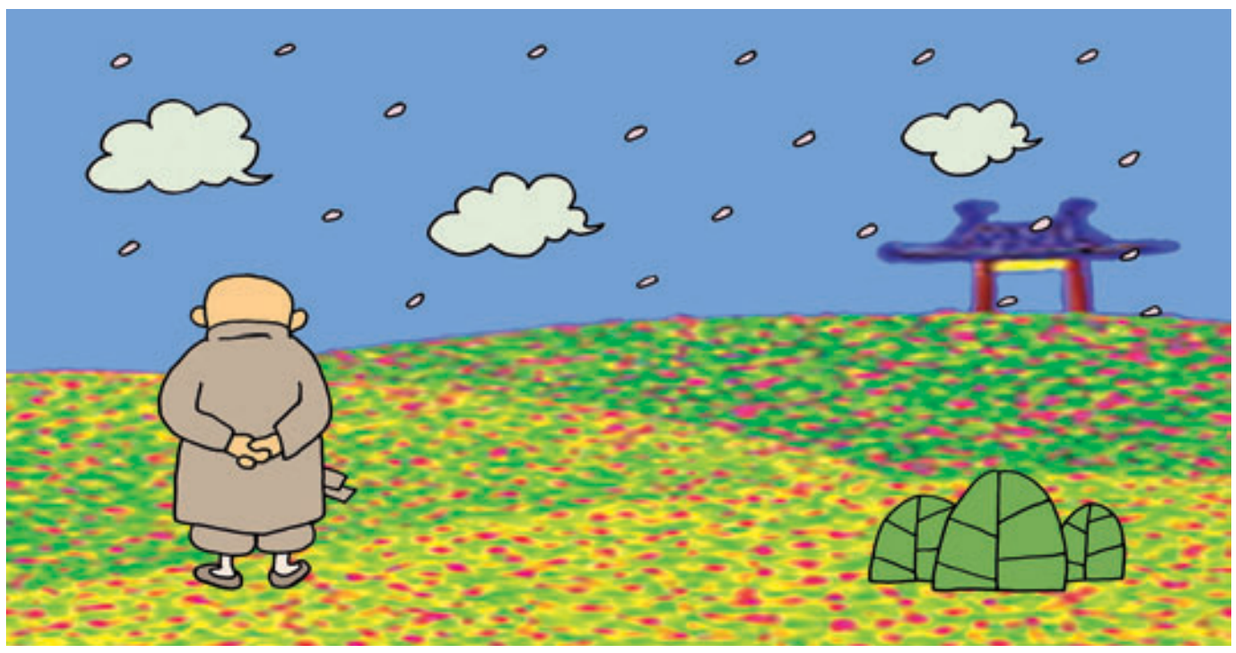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고봉원묘(高峰原妙 · 1238~1295)는 원대 남방 불교의 거두로서 임제종 양기파의 선사이다. 그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선사로 〈선요〉를 지은 선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가 주장한 화두 참구는 대혜종고와는 조금은 다른 화두참구 방법을 주장하였다. 고봉원묘의 구법행각의 이력을 보면, 그는 북송시기의 대혜종고 이후의 간화선을 계승하였다. 그 후 간화선은 남송 이후의 선림의 주류 선학으로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고봉원묘의 선법은 바로 이러한 바탕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왔다.

원나라시기의 중국불교가 처했던 시대적인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원대의 조정은 티베트불교를 신봉하였고 동시에 종교억선(尊教抑禪)의 정책을 펴고 있었다. 당시 북방 선종 가운데, 임제종의 해운인간(海云印簡 · 일명 印簡系) 계통, 조동종의 만송행수(萬松行秀 · 일명 萬松系)계통을 불문하고, 모두 장기간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쇄락하여갔다. 이와 동시에 남방 선종은 지리적인 위치 및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선종의 독특한 활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남방 총림의 오산십찰(五山十刹)이라는 구조와 방식은 비록 변하지 않았지만, 사상적인 방면에서의 변화는 비교적 뚜렷하였다. 당시 남방 선종은 전체적으로 모두 임제종에 속하였다. 예를 들면 대혜종고(1089-1163)와 호구소륭(虎丘紹隆 · 1077-1136) 양파가 있었다. 대혜 제자인 육왕덕광(育王德光)이후에 영은지선(靈隱之善)과 북간거간(北磵居簡)이 있고, 소륭 제자인 밀암함걸(密庵鹹傑)이후에 송원숭암(松源崇嶽)과 파암조선(破庵祖先)이 있었다. 위의 네 가지의 지파(支派)가 당시 남방 임제종의 주류가 되었으며,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네 가지 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공리선(功利禪)과 산림선(山林禪)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공리선(功利禪)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조정과 정치권력을 의지해서 발전한 선종 파벌이며,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선계(之善系)와 거간계(居簡系) 및 숭악계(崇嶽系)의 청무(淸茂), 수충(守忠) 등이다. 당시의 오산십찰(五山十刹)은 모두 이 계통에서 주지를 맡았다. 반대로 산림파(山林禪)의 선승 대부분은 산속에 은거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어떤 선사들은 부분적으로나마 민간에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다만 종정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는 거절하거나 멀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파는 조선계(祖先系)였다.

조선계(祖先系)는 원대 이후 선종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지파(支派)이다. 유명한 선사도 매우 많다. 정치 방면에서 원대 조정과 거리를 두었고 관계도 소원하였다. 수 년 간 산속에서 수행 전념을 하였다. 그렇다고 이 파의 선승들이 지나친 여론을 조장하고 반원(反元)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또 북방 선종과 완전히 단교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 파를 사람들은 ‘안거지식(庵居知識)’이라고 칭했다. 생활방식 역시 북방 선종이 조정에 의지한 것과 달리 하층민의 시주와 자급자족의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비록 공안송고 등을 완전하게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공안송고 등에 대한 찬성을 반대하였다. 조선계(祖先系)는 대혜종고의 간화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널리 간화선을 유포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른바 원대의 남방선종의 주류가 되었다. 때문에 조선계(祖先系)의 간화선은 강렬한 시대의 정신과 기백 및 농후한 지방색채를 지닌 새로운 선법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으며, 원대 전체 선종의 기조가 되었다. 원대 초중기의 이러한 특수한 시기에 정치적인 태도 내지 수행방식 생활방식과 선학사상을 두루 아울러서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선사로서 고봉원묘(高峰元妙)를 꼽을 수가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환경적 배경의 중심에 역시 고봉원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봉원묘의 선사상은 개괄하면 세 가지 단계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화두의 출발인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日歸何處)이고, 두 번째는 ‘의이신위체, 오이의위용(疑以信爲體, 悟以疑爲用)’으로 운용된 방법이고, 세 번째는 최종의 목표로서 ‘무심삼매(無心三昧)’에 도달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 실현은 바로 ‘무심삼매(無心三昧)’의 경계이다.

첫 번째 단계인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日歸何處)’ 화두는 고봉원묘가 득오(得悟)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치는 하나의 관문으로, 이 화두는 대혜종고의 ‘무(無)’자 화두와 같은 것이다. 때에 어떤 스님이 묻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로 돌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조주선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청주에서 하나의 가사를 만들고 있다. 무게는 7근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대혜종고는 이 조주의 공안에서 하나의 어구(語句)를 선택해서 화두를 참구하게 하였는데, 그 의도는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활구(活句)’로서, 조주선사가 해답한 의도와 같다. 즉 문자로 이해하거나 언어나 사량 분별로 이해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고봉원묘의 주장은 다르다. 고봉원묘는 직접적으로 문화(問話 · 물어본 문제)를 참구하기를 제시했다. ‘만법’은 일반적으로 세간과 출세간 일체사물 혹은 삼라만상의 일체 현상을 가리킨다. ‘만법’의 귀속처는 ‘일(一)’이며, 곧 ‘일심(一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심은 만법을 생산하며, 만법은 결국에 일심으로 돌아간다. 이 ‘일심(一心)’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진여불성(本性淸淨 眞如:體)이다. 이러한 경계는 바로 주관(我)과 객관(법(物) · 현상세계)의 세계가 모두 소멸되었을 때의 경계를 일컫는다. 즉 아공법공이 구공(俱空)한 상태를 가리킨다. 고봉원묘는 그의 어록에서 말하기를 “일귀하처는 도리어 무(無)자와 다르다. 또한 의정은 쉽게 발할 수 있다. 하나를 들면 문득 있다. 반복적으로 사유하거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비로소 의정이 생겨 점점 모여서 덩어리(의심덩어리)를 이룬다. 때에 문득 하려는(사량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사량분별의 마음이 곧 없어진다. 여기에 이르러서 만연(萬緣)을 쉬지 않으려 해도 스스로 쉬게 되고, 육근이 고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요해진다.”고 하였다. 그의 제자인 천암원장(千岩元長 · 1284-1357)은 그의 어록에서 “만법귀일, 일귀하처, 이 8개의 글자는 천목고봉노조(天目高峰老祖老祖)가 자증자오(自證自悟)한 후에, 이 8개의 문자로서 사해의 학자를 가르치고 각각 그들로 하여금 자증자오하게 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만법귀일, 일귀하처’라는 8개 문자의 선법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북방 선종 대부분 쇄락**
**남방 선종은 활력 회복**

두 번째 단계는 방법론으로 ‘의이신위체, 오이의위용(疑以信爲體, 悟以疑爲用)’이다. 곧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어떻게 참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오이의위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곧 ‘의정으로 체를 삼는다.’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장차 힘들이지 않고 쉽게 닦을 수 있다. 일찍이 화두를 경험해 보았다. 양손으로 분부하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로 돌아가는 곳이 어디인가? 절대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문득 이렇게 의심을 해야 한다. (또)반드시 의심은 믿음으로써 체(體)를 삼고, 깨달음은 의심의 용(用)을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십분(十分: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십분 의심이 있고, 십분의 의심을 얻으면, 충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화두 의심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믿음이 많으면, 의심도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대개 참선을 하는 데는 승속을 나누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신(信)’이 결정을 한다. 만약에 바로 직하에 믿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롯하여 오욕에 흔들림을 입지 않고, 하나의 철막대기와 같아지면, 반드시 정한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으며, 항아리 안에서 걸어가는 자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고봉원묘가 강조한 ‘신(信)’은 화두를 참구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조건을 강조한 것이다. 그 다음은 ‘오이의위용으로 즉 깨달음은 의심으로써 용을 삼는다는 것으로, 고봉원묘는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참구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바로 ‘의정(疑情)’이라고 여겼다. 그럼 어떻게 의심을 일으켜야 하는가? 그는 이 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먼저 육정 육식, 사대오온, 산하대지, 삼라만상 모두 하나로 녹여서(만들어서) 의심을 지으면, 몰록 목전에..., 이와 같이 행도 또한 하나의 의단(疑團 · 의심덩어리)일 뿐이며, 앉거나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똥오줌을 눌 때도 또한 오직 하나의 의단일 뿐이다. 견문각지에 이르러서, 모두가 다만 하나의 의단으로서 의심해가고 의심해오면, 의심이 수월해지는 곳에 이르러서, 문득 힘을 얻는 곳이 있다(득력처가 있다). (이 때가 되면)의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심이 되며, (화두를)들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고봉원묘가 말하는 ‘오이의위용’의 뜻이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먼저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화두를 간할 때, 반드시 ‘신(信 · 믿음)’을 바탕으로 의심이 이루어져야하고, 깨달음(悟)은 반드시 의심(疑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단계는 ‘무심삼매(無心三昧)’이다. 이 무심삼매는 마지막 단계로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경계는 ‘의도정망심절처(疑到情忘心絶處)’이다. 즉 고봉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심이 정(情)도 잊고 마음도 끊어진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본인이 옛적에 개오(開悟)했을 때 정황을 회고한 것을 보면, “산승이 옛적에 쌍경(雙徑)에 있을 때, 당(堂)에 돌아가 한 달도 되기 전에, 홀연히 몽중에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이로부터 의정이 돈발해서, 침식을 잊고, 동서를 분별하지 않고, 주야도 나누지 않고, 자리를 펴고 발우를 펼 때, 똥오줌을 누고, 어묵동정, 모두가 오직 하나의 일귀하처로서, 문득 조금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고…, 비록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마치 한사람도 없는 것과 같아서, 아침으로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맑고 깨끗하고(澄澄湛湛), 높고 높아서(卓卓巍巍), 순수하고 순수해서 하나의 점조차 끊어졌다. 일념만념에 경계가 적적하고 사람도 잊은(境寂人忘) 것이, 마치 정신이 나아간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꼼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일찍이 학인들을 가리킬 때 이러한 경계를 해석하기를 “차를 마셔도 차를 알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을 알지 못하고, 행하여도 행함을 알지 못하고, 앉아도 앉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정식(情識)이 몰록 깨끗해지고, 사량계탁을 모두 잊으면, 흡사 기는 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고, 마치 니소목조(泥塑木雕 · 꼼짝하지 않는 사람(태도))와 같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태를 칭해서 ‘여치여올(如癡如兀)’ 니소목조(泥塑木雕)의 상태를 ‘무심삼매’의 경계라고 찬술하고 있다.

〈동국대 강사〉







거조암 영산전의 외모는 내세우지 않는 수더분함이 매력의 절정이자, 나서지 않아도 드러나는 존재감이 내공의 형상화다. 사진은 김홍희 사진작가가 촬영한 거조암 영산전 모습.

# 길 끝나는 곳 암자서 만난 부처님과 예수님



상무주 가는길

김홍희 지음/불광 펴냄/1만 9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암자 26곳 기행 이야기 담겨져**
**글과 사진 따로 배치 눈길끌어**
**10월 10일 '스페이스22' 사진전**

사진가 김홍희는 1995년 〈중앙일보〉 '암자로 가는 길'을 연재 했다. 대한항공 기내지인 〈모닝캄〉에 실린 김홍희 작가의 범어사 사진을 본 정찬주 선생이 사진서 기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암자기행 취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였다. 유불선을 익히지 않고는 한국적 사유를 발현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저자는 당시 정찬주 선생의 암자 취재가 지적 물꼬를 틔운 사건이 됐다고 회고한다.

김홍희 작가는 "암자기행은 모태신앙의 크리스천인 내가 불교를 접하고, 유교를 만나고, 도교를 익히는 기막힌 계기가 된 셈이었다"고 밝힌다.

이후 김홍희 작가는 23년 만에 다시 암자를 찾아,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을 펴냈다. 제목은 〈상무주 가는길〉이다. 책 속에는 작심하고 2년에 걸쳐 혼자 모터사이클을 이용해 오른 암자 26곳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나무, 바위, 돌, 물, 하늘…, 그리고 스님. 매번 같은 풍경으로 펼쳐진 암자를 오르고 또 오른 그는 어느 순간 더 위로 머무를 곳 없는 무상(無上)의 땅 '상무주(上無住)'에 올라섰음을 깨달았다. 그곳은 모든 것이 정지된, 마치 돌처럼 흐르는 시간이었다. 그 속에서 그는 갑작스레 찾아든 암세포를 치유하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우울을 털어냈다. 그 치유의 풍경과 시간들을 오롯이 책에 담아낸 작가는 말한다.

"봄 속에 있어도 봄을 모르는 이에게는 실로 봄은 내내 오지 않는 계절일 뿐이다. 어떤가? 당신의 봄은 아직 살아있는가?"라고. '글 쓰는 사진가' 김홍희는 스테디셀러 〈암자로 가는 길〉을 비롯해, 현각 스님의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법정 스님의 〈인도 기행〉, 조용헌의 〈방외지사〉 등에 사진을 실었다. 또한 저서 〈나는 사진이다〉 〈방랑〉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등을 통해 사진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겐 이미 잘 알려진 사진가이기도 하다. 그는 늘 새롭고 획기적인 화각(畵角)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독특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철학이 깃든 작품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동안 사진가로서 30회 가까운 개인전을 치렀고, 줄곧 부산에 거주하며 〈국제신문〉의 '세상 읽기' 칼럼을 올해로 만 7년째 연재중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진만큼이나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도 유명하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재담과 훈훈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남기기도 했다. KBS 〈명작 스캔들〉의 MC, EBS 〈세계테마기행〉 볼리비아, 짐바브웨, 인도네시아 편, 부산 MBC 〈포토에세이 골목〉, 채널 T 〈김홍희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10부작 등에 출연한 방송인이기도 하다.



도솔암과 도솔암 내원궁을 보기 위해서는 반대편 천마봉으로 올라가야 된다. 사진은 고창 선운사 도솔암 전경.

이 책 〈상무주 가는 길〉은 전업 사진가로서, 작가와 방송인으로도 활발히 활동한 인간 김홍희의 결정체로, 그의 인생과 철학, 예술 세계가 응집돼 있다. 인연은 신비롭다. 정신없이 바쁘게 활동하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좇아 암자를 오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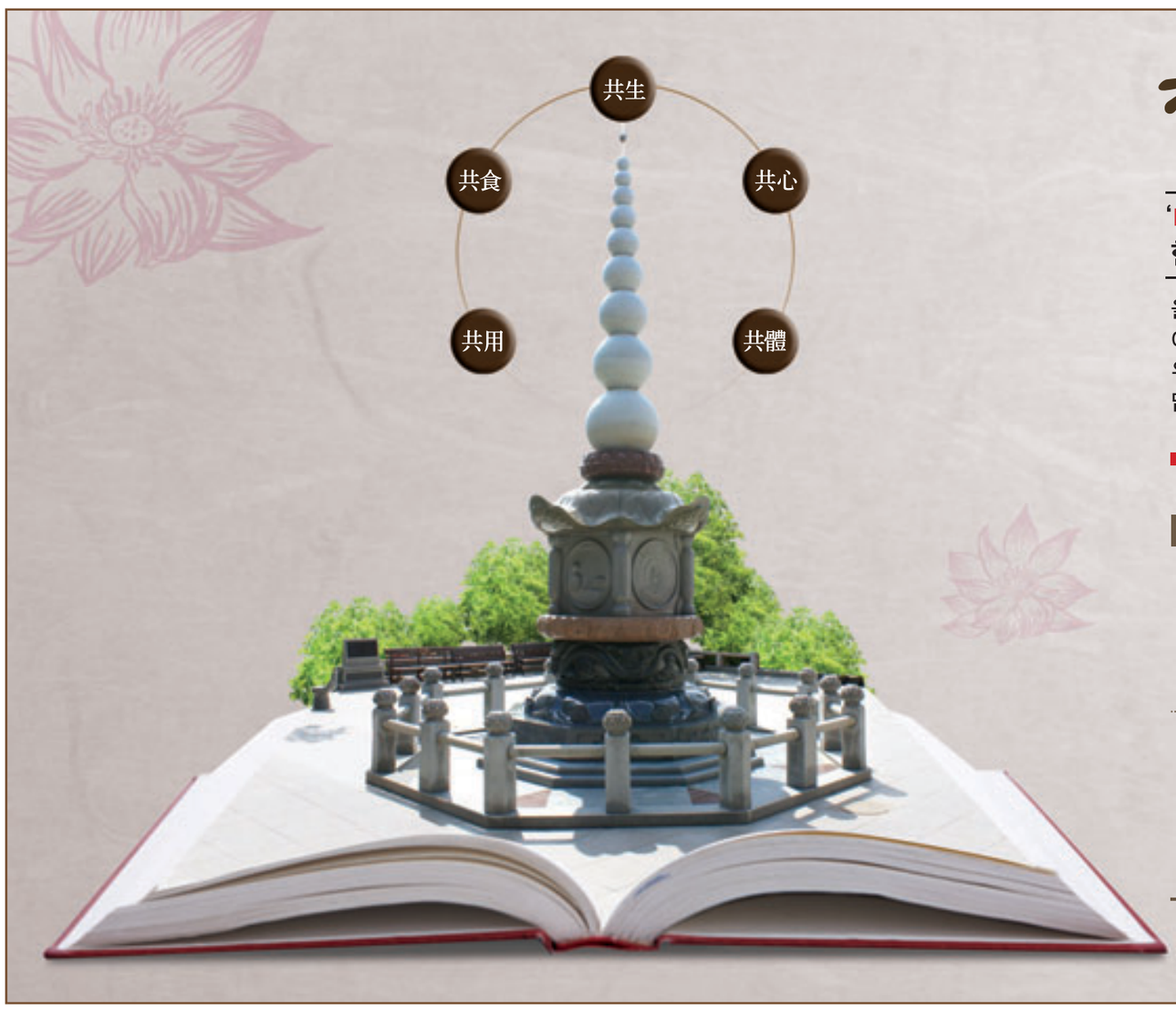
김 작가가 23년 전 사진을 찍던 그때의 그 암자들은 거짓말처럼 지금 그대로였다. 나무, 바위, 돌, 물, 하늘…, 그리고 수행자들. 전국 방방곡곡의 암자 수십 군데를 찾고 오른 뒤 그는 무언(無言)의 경지를 만났다. 그가 일생 매달린, 그의 분신인 카메라도 버리고 남은 한 자루의 펜도 버릴 수 있는 '무상(無想)의 마음'과 마주한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육신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 지병인 대장암과 우울증서 말끔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암자가 있는 곳,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장 높고 고귀한 곳, 그 상무주서 받은 가피이자 영험이라고 김 작가는 고백한다.

책은 〈순천 송광사 불일암〉을 시작으로 〈여수 향일암〉 〈곡성 채안사 성기암〉 〈구례 사성암〉 〈하동 지리산 상선암〉 〈쌍계사 국사암〉 〈함양 지리산 상무주암〉 〈고창 선운사 도솔암〉 〈속초 신흥사 계조암〉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등 전국 26곳 암자의 풍광을 담아냈다. 김홍희 사진작가 특유의 번뜩이는 글과 함께 세심한 감성으로 포착한 100여 컷의 흑백 사진도 실었다. 고집스런 사진가의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사진들이다. 글은 글대로 사진은 사진대로 배치했다. 글과 사진은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절묘한 조화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책을 보다보면 읽는 맛이 보는 맛을 돋우고, 보는 맛이 읽는 맛을 부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페이지를 먼저 열고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상무주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크리스천인 저자는 암자를 순례하며 인간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부처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 깊어졌다고 털어놓는다. 이렇듯 저자의 글쓰기는 경계가 없다. 애써 꾸미지 않고 숨기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성을 끌어내며 암자의 존재 이유를, 사람이 살아가는 일을 정직하고 담백하게 풀어 놓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더욱 선명해지는 총천연색 칼라시대에 흑백 사진을 고집한 까닭이다.

흑백 사진은 돌처럼 천천히 흐르는 암자의 시간을 형상화하며 가슴 깊이 진한 여운으로 다가온다. 추억을 쓰다듬고 아픔을 건드리면서도 진정한 위안의 손길을 내민다. 세상살이의 시름을 딛고 다시 저잣거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안겨준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며 한층 풍요롭고 성숙한 삶으로 안내해준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듯한 돌 같은 흑백의 풍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대 올라보지 않겠는가? 상무주, 그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땅!"

저자가 목격한 작은 암자들은 시간을 거스른 듯한 그의 흑백 카메라 앵글속에 20여년 전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면면히 흐르고 있을 것이다. 한편 김홍희 작가는 10월 10일부터 서울 역삼동 사진미술대안공간 '스페이스22'에서 동명의 사진전도 연다.




제2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대행 큰스님이 탄생하신지 91주년이며, 열반하신지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고, 그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참답게 알리기 위하여 이제 연구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8.10. 26(금) (09:30~17:30) ■ 장소: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1부 오전 학술발표

[사회: 임승택교수(경북대)]
10:50 ~ 11:30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의 수증관에 대한 고찰 – 묵조선과 관련하여 –
· 논평: 정운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11:30 ~ 12:10
· 발표: 김준호교수(울산대)
· 논제: 초기불교의 자아관과 선관 해석에 의거한 수행과 깨달음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2부 오후 학술발표

[사회: 혜원스님(동국대)]
13:00 ~ 13:40
· 발표: 법상스님(중앙승가대)
· 논제: 묘공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하여
· 논평: 안유숙교수(동국대)

13:40 ~ 14:20
· 발표: 고승학교수(금강대)
· 논제: 화엄에서의 수행과 깨달음 –지엄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사회: 이덕진교수(전 창원문성대)]
14:40 ~ 15:20
· 발표: 박소령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의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 논평: 정영식교수(고려대장경 연구소)

15:20 ~ 16:00
· 발표: 청강스님(동국대)
· 논제: 大行의 증명관 一考
· 논평: 박재현교수(동명대)

16:20 ~ 17:30
· 토론광장 / 마무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 하늘에서 바라본 '불탑 만다라'

## 송석곤 사진전 '탑에서 탑을 보다'
## 통도사성보박물관 10.6~28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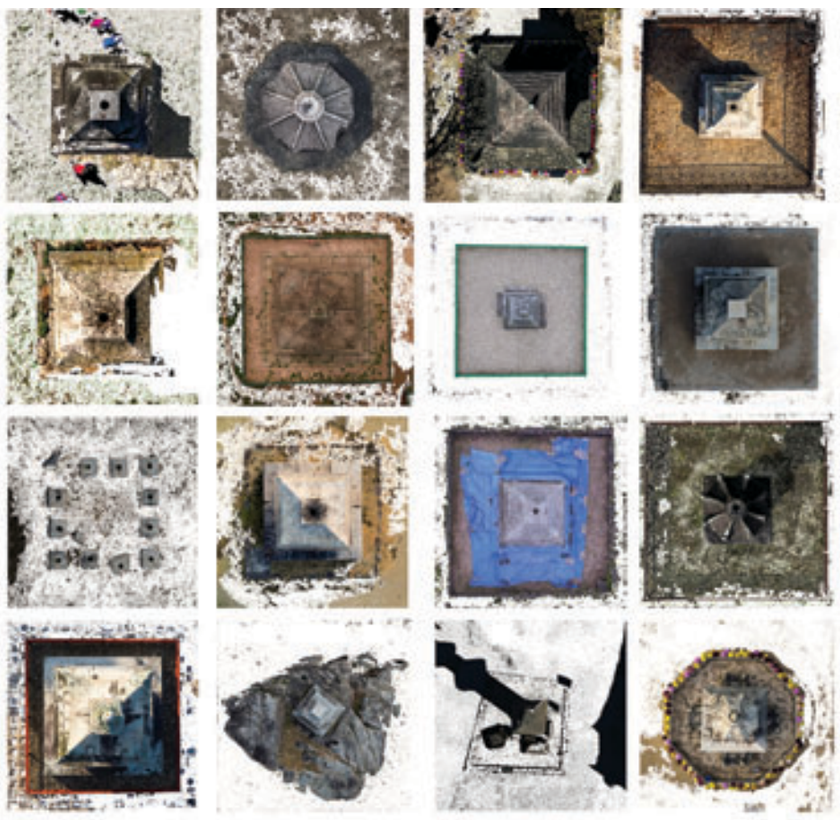
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사진전이 열린다. 통도사박물관은 10월 6일부터 28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작가 송석곤의 '탑에서 탑을 보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송 작가가 2000년 이후 전국의 사찰을 돌며 렌즈에 담은 탑 200여 점이 전시되는데, 그중에는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탑 사진 108점이 포함되어 있다. 송 작가는 3년여 전부터 드론을 이용해 탑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진을 사진이 아닌 한지에 프린트하여 수 백년 동안 시공간을 초월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화한 탑의 모습을 회화적인 작업으로 완성했다.

이 땅에 서 있는 오래 된 '탑'의 대부분은 불탑(佛塔)이다. 오랜 세월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그 탑들은 여러 면에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물이다. 그 탑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랜 세월 우리 곁에 있어 왔지만 평소 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이유는 쉽지 않다. 불자인 송 작가는 2000년부터 이 땅의 탑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탑에 대한 생각이 일었고, 바라보고 싶어졌다.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것의 안을 보고 싶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안을 보고 싶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보고 싶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송 작가는 오랜 세월 탑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터인가 탑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싶어졌다. 하늘에서 탑을 본다면 어떤 모습이며, 그 모습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탑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들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송 작가는 자문하기 시작했고, 그 자문들이 지금까지 사진을 찍게 한 것이다.

오랜 세월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존재하는 탑들은 불심의 기운이 서려있는 구조물이다. 송 작가는 그런 영성의 시간들을 렌즈에 담고 싶었다. 전국의 탑을 찾아다니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지나간 시간들의 흔적을 찾았다. 송 작가의 렌즈에 탑들이 쌓이면서 송 작가는 탑이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읽어나갈 수 있었다. 대칭의 구조를 통해 조형적 만다라를 볼 수 있었고, 그 만다라를 통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제법무아(諸法無我)'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주 분황사 모전탑(첫줄 3번째), 창녕술정리 동삼층석탑(셋째줄 2번째) 등 송석곤 작가가 드론을 이용해 찍은 탑사진.

송 작가가 하늘에서 찍은 탑들은 3차원적인 공간이 카메라를 통해서 평면화 되고, 평면화 된 공간은 다시 비례와 균형의 조형 요소와 함께 영적인 상황들을 연출한다. 땅끝마을에서 만나는 이름 모를 탑에서 작가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보고, 하늘에서 세상과 소통했다. 탑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서 공(空)과 색(色)이 순환하는 물질계의 영성을 암시하기도 하고, 대자연 앞에 굳건히 서있는 영원성을 보여준다. 추상적인 조형성으로 기록된 사진 속 탑들은 영성의 시간 속에서 작가가 찾아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탑에서 본 탑'인 것이다.

송석곤 사진가는 대구대학교를 졸업했고, 경성대학교 사진대학원을 수료했다. 울산시의회에서 2006 태화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1983년 신인전을 시작으로 2006년 울산 이야기, 2017년 동해아트페어, 2018년 평창올림픽단체전 등 1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리고 통도사성보박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팔레드 등에서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 한국화를 벗어난 한국화

## 임무상 기획초대전 제주 현인갤러리 10.3~20
## '곡선미의 찬가-산, 소나무, 달 그리고' 展


임무상 作, 린(隣)8-Korean Nocturne 42x33.5㎝ 한지, 먹, 천연혼합채색.

공동체 정신과 한국적 곡선 미학으로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임무상 화가의 기획초대전이 열린다.

제주도 현인갤러리는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획초대전 임무상의 '곡선미의 찬가-산, 소나무, 달 그리고' 展을 개최한다.

임 화백 그림의 테마는 '곡선미학'이다. 위대한 단순미로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임 화백의 '곡선'은 2005년 임 화백이 금강산을 다녀온 후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조형언어인 곡선화법으로 금강산을 그림으로써 새로운 산의 형상을 구현해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임 화백이 금강산 작화 이후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법에서 일정 부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자연과 합일하여 유희하고 관조하면서 재해석한 그림들이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보다 자연스러움에 접근해 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열어놓은 '한국화'에서 또 한 번 벗어난 한국화다.

임 화백의 곡선은 작가 자신이 추구하는 '린(隣)'이라는 대전제를 품은 곡선으로, 임우상의 고유한 알파벳이다. 이 시대의 화두인 '친환경', '더불어 살기'에 부합될 수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임무상의 '린(隣)'은 수묵의 모더니즘 추구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공동체 정신과 한국적 곡선미학이 접목된 새로운 형상화 작업을 시도한 한국성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린(隣)은 원융한 것이어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 됨을 뜻하며 공동체 문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임 화백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직선보다는 곡선의 쓰임 쪽에 기울어 있다고 보고 그 곡선을 자신의 작품 속에 심었다.

임무상 화백은 2013년 7월 파리 중심부에 있는 갤러리 셀렉티브 아트(Selective Art) 초대전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전속작가 계약을 맺었다. 이어 이태리 파도바 아바노 지역 갤러리 아트시마(ARTissima) 화랑에 초대 받아 유럽에서 황금기간인 그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순회전시를 한 바 있다. 현재 스위스 GSTAAD Gallery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삼국유사〉로 읽는 새로운 신라사

## 국립경주박물관 강좌 10.11~12.13

〈삼국유사〉를 통해 신라의 역사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14:00~16:00) 세미나실에서 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신라학 강좌'를 진행한다.

'신라학 강좌'는 신라 천년 역사의 의미를 돌아보고,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성인 대상 전문 강좌이다. 지난 4월부터 '신라의 불교미술과 고고학의 최신 성과', 그리고 '석굴암의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26강좌를 운영하여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11일부터는 경북대학교 주보돈 명예교수를 초청, '〈삼국유사〉로 읽는 새로운 신라사'라는 주제로 10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고대사 복원의 주축을 이루는 양대 기본 사서(史書)이나 〈삼국사기〉와 비교하면 설화적 성격의 내용이 많아 논란의 부분도 있어왔다. 그러나 논란거리가 많은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소재가 풍부하다는 점이 〈삼국유사〉의 매력이다. 그 만큼 이번 강의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고대사의 권위자인 주보돈 교수는 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과 계명대학교 대학원(박사)에서 한국고대사를 전공했다.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한국목간학회 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1998), 〈금석문과 신라사〉(2002), 〈임나일본부설, 다시 되살아나는 망령〉(2012), 〈가야사 새로 읽기〉(2017),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2018), 〈한국고대사의 기본 사료〉(2018) 등이 있다.

참가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 '교육 · 행사'에서 접수할 수 있고,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박재완 기자



# ‘조선=숭유억불’ 아니었다

역사비평 조선 건국 다시보기 기획 ‘눈길’

**‘思·宗·僧·書’ 주제 나눠 분석**
**숭유억불 인식 1910년대 고착**
**지나친 일반화… 과잉해석 담론**
**고려·조선불교 단절 아닌 연속**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숭유억불(崇儒抑佛)’,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시기로 인식한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불교는 숭불에서 억불로 단절되는 역사를 겪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담론이 지나친 일반화이며, 과잉 해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사 전문 학술지 〈역사비평〉은 통권 제123호에서 ‘조선 건국 다시보기-불교, 유불교체의 파고를 넘다’를 기획으로 다뤘다.

기획에서는 사상·종단·승도·서적 등 4가지 주제로 각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여말선초의 왕조 교체 시기를 연속성적 측면에서 조명했다.

### 숭유억불, 식민사관의 산물

사상적 측면에서 접근한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숭유억불’ 담론이 정치·사회사적 측면은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사상·신앙적인 면에서는 단절이 아닌 연속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숭유억불’이라는 조선불교의 수식은 그 태생이 당대가 아닌 후대의 인식이 반영된 일종의 ‘조어’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숭유억불’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일본의 숭불 전통과 조선의 억불을 비교한 1906년 10월 16일자 〈대한매일신보〉 사설에서다. 이후 1911년 일본인 학자 후루타니 기요시의 〈이조불교사경개〉 서언에서 ‘배불숭유’가 사용되는데 그는 조선시대를 ‘한 편의 불교 쇠망사’라고 단언했다.

또한 다카하시 도오루는 저서 〈이조불교(1929)〉에서 “조선불교는 억압과 쇠퇴로 발전이 정체되고 여성과 서민의 신앙을 제외하면 독자적 특성이 없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숭유억불이나 유불교체, 그로 인한 불교의 침체라는 조선불교에 대한 전형적 인식은 1910년대 이후 고착됐으며, 이는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숭유억불’ 개념은 정치이념, 주류사상, 시대의식에 한정시켜볼 때는 이해가 가지만, 가치관과 심성, 종교와 문화 등을 포괄하는 전통의 장기지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신앙적 단절없이 연속돼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가 의례를 제외한 고려의 불교신앙이나 재회의 상당수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단절없이 이어졌으며, 왕실에서도 숭불과 후원의 양상이 조선 말까지 계속돼 왔음을 예로 들었다. 조선 태조는 흥천사에서 우란분재를 열고 국행 수륙재를 설행했으며, 〈세종실록〉에는 우란분재를 당시의 세시풍속으로 소개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여말선초기 정치이념과 시대사조는 분명 유교로 전환됐지만, 종교와 관습의 영역에서 불교가 가진 지속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면서 “왕조 교체를 단절과 전환의 기점으로 획정하기보다는 이 시기를 변동과 연속의 두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의 흐름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단절 아닌 변화로 봐야

조선 초기 불교 정책을 종단의 측면에서 살핀 박광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와 승려의 관점서 분석한 양혜원 서울대 강사도 여말선초 시기의 불교를 단절이 아닌 연속과 변화로 해석했다.

손성필 한국고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세기 국왕과 왕실의 불교서적 간행을 재조명하며 기존의 연구 관행과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단선적 발전이라는 역사 인식이 가지는 맹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손 연구원은 “유불교체, 숭유억불 등은 단선적 역사 발전 인식이라는 서유럽의 역사 모델을 한국사에 대입하면서 지나친 일반화·이분법으로 과장 해석된 담론”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선적·결정론적 인식에 따라 역사 현실을 일반화하면 소외되는 분야·주체·사건 등이 발생한다. 조선시대 불교와 15세기 불교서적이 그러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 경주 ‘신라의 미소’ 보물 된다

**문화재청, 10월 2일 지정 예고**
**군위 법주사 등 3곳 괘불 함께**
**동화사 삼존상 등 보물 지정도**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사진〉’와 괘불 등 불교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등 6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강점기 경주 영묘사지(현재 사적 제15호 흥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수막새이다. 1934년 다나카 도시노부(田中敏信)라는 일본인 의사가 경주의 한 골동상점에서 구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했으나, 故 박일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1972년 10월 국내로 돌아왔다.

와당 제작틀(와범)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찍은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달리 손으로 직접 빚은 작품으로, 바탕흙을 채워 가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든 후 도구를 써서 세부 표현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 시대 얼굴무늬 수막새로 신라인들의 염원과 인간적인 모습을 구현한 듯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정 예고에는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에 소장된 대형불화인 괘불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밀조사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새롭게 발굴된 괘불도 3건도 포함됐다.

‘군위 법주사 괘불도’는 1714년(숙종 40년) 5월 수화승 두초 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해 완성한 괘불로 총 16폭의 비단을 이었고 높이는 10m에 달한다.

부처임에도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착용한 보살의 모습으로 구현한 점, 하단에 용왕(龍王)과 용녀(龍女)를 협시보살처럼 배치한 점 등 다른 불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화면 구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1750년(영조 26년) 축명·사혜 등 4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으로, 18세기 중엽 충청도 지역의 괘불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1788년(정조 12년) 조선 후기 대표 불화승인 상겸(尙謙)의 주도로 총 22명의 화승이 조성에 참여했다. 이 괘불도는 높이 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해 18세기 후반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함께 지정된 ‘경선사명 청동북’은 불교 의례에서 사용된 의식구로 명문이 표기된 청동북은 찾아보기 어려워 고려 금속공예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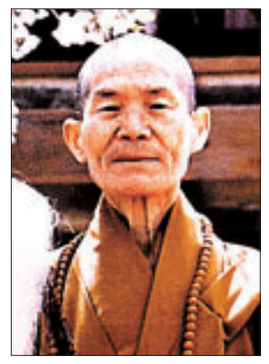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군위 법주사 괘불도’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보물로 지정했다. 또한 김홍도의 역작 ‘삼공불환도’는 보물 제2000호 지정의 영예를 안았다.

신성민 기자

# 현대 선지식 고암 대종사 정신 기린다

**고암문도회, 대종사 열반 30주기 기념 학술대회**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고암상언(古庵祥彦, 1899~1988·사진) 대종사 열반 30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고암문도회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계간 〈불교평론〉 주관으로 고암상언 대종사 열반 3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과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불교 전반에 대한 문제와 고암 대종사의 사상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종정제도의 기원과 전개’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한국불교의 계맥과 계단 개설’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선교율 동수론(同修論) 고찰’ △서재영 불광연구원 연구원의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역사와 전망’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교수 마성 스님의 ‘한국불교에서 용성문도의 위상’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고암상언의 생애와 사상 탐구’ 등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고암문도회는 “고암상언 대종사는 용성 조사의 법맥을 이은 대선사이자 종단 계맥을 전수한 율사이면서 종정을 세 차례 역임한 현대 한국불교의 고승”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대종사께서 한국불교에 끼친 각 방면의 영향과 공덕을 살펴보고 그 계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암 문도회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고암대종사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

신성민 기자

# 봉암 변월주 스님 사상 재조명

**봉암문도회 10월 19일 학술세미나**

백용성 스님의 전법제자인 봉암 변월주 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봉암문도회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암 변월주 사상의 재인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주관은 대각사상연구원이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마성 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이덕진(대행선연구원)·김응철(중앙승가대)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선사상 △대승불교 △포교사상 △불교정화 등의 분야에서 봉암 변월주 스님의 활동과 사상을 조명한다.

신성민 기자

# 금산사 보살계사상 위상 살핀다

**한국불교학회, 10월 19일 추계학술대회**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의 보살계사상과 위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산사(주지 성우)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10월 19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금산사, 보살계사상의 전승과 실천’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금산사 출산 고승과 역사적 위상, 사상 등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금산사를 빛낸 중흥조 고승들의 업적과 시대별 특징’ △박광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고려 전기 불교교단에서 금산사의 위상’ △이수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금산사 방등계단과 진표율사’ △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의 ‘금산사 미륵전 불상과 김복진’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보살사상의 사회참여적 측면과 월주 스님의 사회참여활동’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재소자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⑲ 무기수 김병호

# '가난' 벗으려 황소처럼 살다 간 무기수

**6·25때 억울한 반역 혐의**
**26년간 무기수로 징역살이**

**가난 대물림 끊기 위해**
**죽기 전까지 노역에만 몰두**

**손자 위해 일당 전액 저축**
**"황소처럼 성실하게 살거라"**

형 집행대기 상태로 언제 생명이 박탈될지 알 수 없는 사형수, 그리고 이미 종신형이 선고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수인생활이 지속되는 무기수. 앞서 소개한 18명의 사형수에 이어, 이번 19번째 재소자부터는 무기수의 삶을 조명한다.

'감옥에서 맞는 죽음'을 둘러싼 그들의 삶은 상반된다. 형 집행이 불시에 정해지기에 항시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사형수와 달리, 무기수는 중병 환자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본인도 자신의 죽음 시점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막연하게 이어지는 삶을 감내해야 된다. 무기수의 삶은 그렇게 출소의 희망도, 죽음의 기약도 없이 교도소에 몸이 묶인 채 교정일상을 반복하는 삶이다.

첫 번째로 소개할 무기수는 수인생활 내내 가난이란 멍에를 지고 황소처럼 살다간 김병호(55)씨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쉼 없는 26년을 보냈다.

김 씨와는 1970년대 초 대구교도소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가난한 농사꾼 출신의 사형수였다. 6·25전쟁 당시 적군을 도운 혐의로 투옥됐다. 머리에 총부리를 겨누고 포탄을 지게에 나르라는 적군의 협박 앞에 김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 그때 김 씨가 협박에 맞섰다면 김 씨는 감옥이 아니라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김 씨는 모범적인 재소생활 덕분에 9년 4개월 만에 무기로 감형됐다.

김 씨에게는 손자가 있었다. 김 씨의 아들은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죽었다. 아버지를 여읜 손자를 둔 김 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대대로 가난에 시달린 김 씨는 손자에게만큼은 그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죽은 아들대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손자를 위해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나와 만나는 개인교회(敎誨)시간 외에는 일절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하루 급여 5원을 받고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일에만 쏟았다.



'황소 할아버지'로 불린 김병호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교도소에서 5년간 일한 돈을 모아 손자에게 황소 한 마리를 선물했다. 사진은 고령의 재소자들을 만나고 있는 삼중 스님(왼쪽 뒷모습).

교도소 내 그를 아는 이들은 김 씨가 지독하다고 손가락질했다. 돈을 모을 줄만 알지 도무지 돈 한 푼 쓰는 법이 없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이다.

어느 날은 인기가수 이미자 씨가 대구교도소로 위문공연을 왔다. 당시 최고 인기를 누렸던 이미자가 온다는 소식에 그 날은 온 교도소가 들썩였다. 지옥 같은 수감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에게 공연은 흔치 않은 즐거움 중 하나였다.

공연을 서로 보겠다고 설치는 3000여 명의 재소자들을 강당에 모두 앉힐 순 없었다. 따라서 교도소는 매번 모범수를 우선 입장시키곤 했다.

조용히 일만 하는 김 씨는 모범수 중의 모범수였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도 김 씨는 강당에 발 한 번 붙인 적이 없었다. 이미자가 아니라, 어떤 유명가수가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김 씨의 사연이 궁금해진 나는 그에게 물었다.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리 일만 하십니까."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스님. 제가 수감되기 전 아들놈을 잃었는데, 손자가 눈에 밟히고 또 밟힙니다. 그 손자에게만은 꼭 어떻게든 돈을 모아 황소 한 마리를 사주고 싶어서요. 사형수로 들어와 이젠 무기수가 되었는지라, 죽을 때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마지막 소망이자, 할애비가 손주놈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비 노릇이겠지요."

사연이 알려진 그는 '황소 할아버지'란 별명을 가지게 됐다. 이 황소할아버지는 5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결국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마련했다.

김 씨는 모은 돈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전하며 말했다.

"이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키워다오. 다 키운 황소를 팔아 아이 몫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 게으름 피우지 않는 황소처럼 살라는 뜻에서 할애비가 주는 것이라고. 내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구나."

이후 그는 병을 얻어 교도소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가난의 대물림에 한 맺힌 김 씨는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쟁기질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들대신 아버지 노릇을 다하고 기꺼이 눈 감은 황소할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리=김지원 기자

---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⑱ 명성 스님 · 목정배 교수님

어느 날 길을 가다 미술관이 보여 들어가니 화가에게 묻는 글이 입구에 쓰여 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오?
까치 그리는 사람이오."

이 글을 보는 순간 스님이 겹쳐졌다. 하늘에는 명성(明星)의 별이 떠있고 땅에는 명성(名聲)의 이름이 떠돌고. 스님, 무엇을 하는 스님인지요? 마음으로 묻고 마음으로 답을 받으며 삼배를 올렸다.




미천당 철우 법사로도 불린다. 생전에 세제(世諦)불교 운동을 하시며 많은 법사들에게 길을 열어 주었다. 교수님이 창간하신 포교지 〈법수레〉는 올해 제300호가 출간되었다. 지난 10월 3일 정각원에서 세제불교 운동 30년 기념 법회가 열렸다. 세제불교운동 30년을 정리하고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세대와 미래 불교를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찬탄하는 마음과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법수레〉 297호 '사자후의 여향'에 실린 '잘 돌아가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일부 발췌해 본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빙빙 돌고 있지. 유행가의 가락처럼 허망한 형상을 쳐다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허상의 언저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가."




九龍, 금룡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 용왕단 조성 및 연못 - 분수기능
■ 소원성취단(소원지.소원패등)
■ 소장사찰 : 여수향일암 강화보문사등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YESGOOD.CO.LTD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오시는길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인도 네팔 8대 성지 순례 11일

출발일 : 11월 9일 특급 2,190,000
~~11월 26일~~ 마감
~~12월 9일~~ 마감

미얀마 성지순례
김해공항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실속상품 1,590,000원
출발일 : ~~11월7일~~ 마감, ~~14일~~ 마감 / 12월5일, 12일 / ~~1월2일~~ 마감, 16일, 23일 / 2월20일, 27일
인천공항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실속상품 1,790,000원
출발일: ~~11월9일~~ 마감 / ~~12월3일~~ 마감, 10일, 20일 / 1월10일, 17일
미얀마 무비자(관광)기념 특별가 3회 실시
초특급 양공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인ле) 6일
판매가 2,040,000원
출발일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20일
각항-대한항공
▶ 무비자, 기사/가이드 팁 포함 - 추가 경비 일체 없음

부탄 성지순례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성지순례 4박6일
파로-팀푸-푸나카-파로
출발일 7월2일/7일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하늘가 맞닿은 성지 티베트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칭짱열차*체험
인천-서안-라싸-암드록초-장체-시가체
라싸-칭짱열차-서안-인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 | | |
|---|---|---|
| 6절 (305×306) | 정가 1,800원 | 1,400원(500부 이상)<br>100부 주문시 1,600원<br>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br>2,000부 주문시 1,300원 |
| 12절 (255×260) | 정가 1,600원 | 1,100원(500부 이상)<br>100부 주문시 1,300원<br>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br>2,000부 주문시 1,000원 |
| 미니스프링 (90×98) | 정가 800원 | 할인가 600원 |
| 미니 수첩 (90×130) | 정가 1,000원 | 할인가 700원 |
| 비닐캡 (90×160) | 정가 800원 | 할인가 400원 |
| 탁상카렌다 (260×190) | 정가 2,500원 |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Daum NAVER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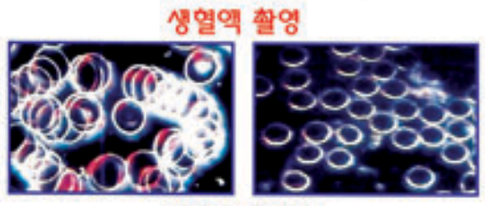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BLOOD MATE® 비누 한 번으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생혈액 촬영



뇌파 측정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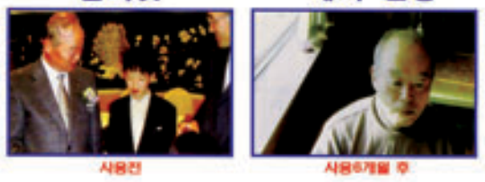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BLOOD MATE®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 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뾰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모든 잇몸질환)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 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 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꾸르륵 꾸르륵하고 장운동 소리가 자주나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묶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지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적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 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온열을피부속깊이전달하여 ▶ 매끄럽고탄력있는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다량의용존산소를발산하며물분자를활성화하여 ▶ 청결한 구강
- 각종균의정균작용과살균,악취제거탁월. ▶ 충치예방과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C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